

붉은 보건 전사 만들기:

북한 보건 의료 부문의 사상 투쟁, 1956-1961*

정준호⁺, 김민규⁺⁺, 김옥주⁺⁺⁺

1. 서론

인텔리의 문제는 북한 노동당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이다. 『우리 당의 인텔리 정책』(1992)에 의하면 인텔리들이 아무리 풍부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올바른 사상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으며” 심지어 “사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상을 개조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 동시에 인텔리 문제는 북한 노동당이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만큼 창의적이고 모범적으로 해결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북한은 동구권과 소

* We thank the U.S. Library of Congress (Asian Reading Room Korean Collection) and Reference Specialist Sonya S. Lee for providing valuable primary sources for this study.

⁺ 서울대학교, parasite@snu.ac.kr

⁺⁺ 서울대학교, medicaljustin@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okim9646@snu.ac.kr

¹ 최희열 저, 지금희 편, 『우리 당의 인텔리 정책』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35. 북한 노동당의 지식인 정책을 정리한 이 책의 1972년 판은 그 서지 사항이 사회과학출판사, 『우리 당의 인텔리 정책—조선로동당 정책해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로 되어있다. 1992년 저자와 편집자 이름이 명시되어 개정 증보판이 출간되었다. 1992년 판은 동구권과 소련의 사회주의 몰락 이후 저술된 것으로 이들의 몰락 원인에는 인텔리 정책의 오류가 있으며 북한에서는 인텔리 문제를 창조적이며 바르게 해결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발전이 지속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역사적 시기 북한의 지식인 정책을 최근 북한 노동당의 지식인 정책 및 해석에 비추어 검토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1992년 판을 사용하였다.

련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인텔리의 이중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생산 관계가 정립되면 인텔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반영론, 자연 성장론에 따라 “인텔리의 사상 개조 사업을 완전히 집어던진 이 나라 당들의 자살적인 실책”이라는 것이다.²

해방 이후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인텔리의 절대적 숫자가 부족하던 시기에 북한은 출신 성분이나 사상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일제 강점기에 배출된 오랜 인텔리들을 활동하게 하였다. 한국 전쟁을 거치며 국내파를 숙청하여 권력을 다져나가던 김일성이 심각한 당 내부의 도전을 받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주류파는 반종파 투쟁을 통해 인텔리들에 대해 철저한 검열과 사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인텔리의 기술 전문성에 무게를 두었던 이전 시기의 경향은 반종파 투쟁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변화되었다. 전 사회적으로 사상성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며 당 정책을 최우선하지 않는 인텔리들은 비판받고 축출되었다.

주로 인텔리들로 이루어진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집중적인 사상 투쟁이 이루어졌다.³ 보건 의료 사업은 본질적으로 인민들을 직접 대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직업이므로 대다수 중급 일꾼들의 사상성과 봉사성 또한 중요했다. 반종파 투쟁으로 발화된 전국적인 사상 투쟁을 통해서 천리마 운동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대중 동원을 하는 이 시기에 노동자와 인민의 위생, 질병 예방, 치료를 책임지고 노동력을 보존하는 과제가 보건 일꾼에게 부여되었다. 1959년 4월에는 김일성과 당 중앙 위원회가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참가하여 이들에게 낡은 부르주아 사상 잔재에 대해 투쟁할 것을 촉구한 이후, 전국의 보건 분야의 기관들과 부문들에서 전면적인 사상 투쟁이 벌어졌다. 이 시기에 북한 사회 전 부문에서 벌어졌던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유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에 더하여, 보건 의료 부문에서는 예방 의학 우선의 당 정책의 관철, 사회주의 의학 이론의 절대화, 의학의 기술 지상주의에 대한 투쟁

2 최희열 저, *지금의 편*, 앞 책, 36.

3 북한이 말하는 “보건 일꾼”에는 의무 일꾼(의사), 약무 일꾼(약사, 약제사, 약종상), 의학 과학 연구원, 군의 일꾼(군의원, 간호 장교, 위생병), 한의 일꾼(한 의사), 펠셀, 위생 검열사, 간호원 뿐만 아니라, 의학대학 등에서 의학을 교수하는 전문 인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의사와 약사, 준의사는 상급 보건 일꾼으로 분류되며, 간호사, 조산사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양성할 수 있는 인력들은 중등 보건 일꾼으로 분류 되었다. 이 중 의사들을 양성하고 의학 연구를 하는 유수 의학대학의 교원들은 가장 영향력이 큰 인력이었다.

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59년 하반기에는 일제 강점기에 배출되어 해방 이후 북한 의학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던 오랜 인텔리 출신의 의학자들이 반혁명 분자로 비판받고 숙청되었다.

북한에서 1956년부터 1961년까지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진행된 사상 투쟁에 대해 다른 이 연구는 북한에서 발간된 보건 의료의 두 잡지 『인민 보건』과 『조선 의학』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텔리 정책을 천명한 자료들을 포함한 당시 발간된 주요 일차 자료들과 이 주제에 대한 북한사의 주요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⁶ 물론 두 잡지는 중앙 정부에서 모든 내용을 통제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반종파 투쟁이 전개되면서 보건성 지도부가 숙청을 통해 실각하며 『인민 보건』 편집진과 기자도 달라졌을 것인데, 이러한 인적 구성의 변화에 따라 잡지의 내

4 『인민 보건』 잡지는 “보건성 기관 잡지로서 당과 정부의 인민 보건 정책을 침투 관찰시키며 보건 사업 각 분야에서 얻은 경험들과 선진 의학들을 보급 일반화하며 전체 보건 일꾼들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며 그들을 당의 보건 정책 관철에로 동원한다”는 취지에서 발행되었다. 『인민 보건』의 성격과 역사 연구의 자료로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옥주, “북한 의학 잡지 연구: 1950년대 『인민 보건』을 중심으로”, 『의사학』 11:2 (2002), 165-185 참조.

5 『조선 의학』은 1954년 1월에 창간된 북한의 의학 과학기술 월간 잡지로서 주로 전문적인 의학 지식 기사나 학술 논문들이 게재되어 의사, 의학자, 의대 교수들이 주된 저자와 독자층을 이루다가, 195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실제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는 학문의 현장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1959년 『조선 의학』은 “림상 의학 부문의 종합적 학술 잡지로서 제반 보건 분야에서 얻은 학술적 업적, 연구 성과와 실천적 경험 및 논평 등을 수록하며 학술적 방조와 실천적 도입 적용에 실제적 도움을 준다”고 소개되었다. 편집부, “1959년도 조선 의학 서적 출판사 출판물 발행 안내”, 『인민 보건』 1959년 12월, 46.

6 1954년 창간된 『조선 의학』잡지가 의학자, 교수, 의사, 교원들 대상으로 발간된 반면, 북한의 보건 의료 종합 잡지인 『인민 보건』은 보건성 기관지로서 당의 인민 보건 정책을 인쇄 매체를 통해 전국에 전달하고 이를 관찰시키는 수단이었다. 시기마다 보건 의료 부문에 제기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김일성을 포함하여 부수상, 보건상, 보건성 각 부처의 고위 인사들이 직접 기술한 논설을 신기도 하고 각 지역과 지방의 여러 보건 기관에 종사하는 다양한 보건 일꾼의 경험과 주장을 신기도 하였다. 두 달에 한번 꼴로 발행된 『조선 의학』은 학계의 논문들과 의학 과학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게재되어 있으며, 보건성의 공식 잡지인 『인민 보건』은 매달 발행이 되어 보건 의료계의 소식과 보건성 입장, 보건 의료계의 각계 각층의 기고가 실려 있는 것도 자료로서의 장점이 있다. 1957년 『인민 보건』 독자의 편지를 보면 당시 보건 일꾼이 두 잡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나타나 있다. 한 독자에 따르면, 1954년부터 출간되고 있는 의학 전문 잡지인 『조선 의학』이 있는데다 1957년 『인민 보건』이 다시 복간되는 상황에서 양자 간의 역할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즉 학술 연구의 문제를 게재하는 『조선 의학』과 좀 더 광범한 인민들이 읽을 수 있는 『인민 보건』을 따로 설정하고 후자의 내용을 평이하게 하여 대다수 중등 보건 일꾼들의 의학 상식을 높여주도록 꾸며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우덕환, “독자들로부터”, 『인민 보건』 1958년 2월, 22.

용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갔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의 부족과 사실(史實)의 개찬(改竄)으로 어려움이 있는 북한 역사 연구에서,⁷ 격월 또는 매달 발간되는 학술지의 경우는 이후 개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른 자료에 비해 이 두 잡지는 역사적 자료로서 좀 더 큰 가치가 있다.

북한 정치사와 과학사에 대한 선행 업적들은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해방 이후 노동당과 김일성이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 대한 서동만과 이태섭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 북한의 인텔리 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한 윤여령의 연구, 강호제의 1950-60년대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 변학문의 1960-70년대 사상 혁명과 기술 혁명의 병행을 살핀 포괄적인 연구 등의 그것이다.⁸ 그 외에도 김근배는 일련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과 보건 인력에 대한 정책 변화를 고찰하였으며,⁹ 신효숙 등은 북한의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였다.¹⁰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에서 보건 의료 분야의 인텔리 문제가 사상 투쟁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19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이루어진 반종파 투쟁에 대해서 1950년대 말 김시창의 숙청과 파블로프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¹¹

이 논문은 보건 의료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오랜 인텔리들에 대해 관용적인

7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31-44.

8 같은 책;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들녘, 2001); 윤여령, “북한 인텔리 정책 연구: 해방 이후-1980년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I』 (선인, 2008); 변학문, “북한의 기술혁명론 : 1960-70년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9 김근배, “초기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의 창출”, 『한국과학사학회지』 25:1 (2003), 25-42;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 과학기술계 학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2:2 (2000), 192-216;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사이에서: 북한 ‘봉만학살’의 부침”, 『한국과학사학회지』 21:2 (1999), 194-220; “북한 함흥의과대학 교수진의 구성, 1946-48: 사상성과 전문성의 불안한 공존”, 『의사학』 24:3 (2015), 709-748;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의사되기: 해방 직후 북한의 의과대학 교원들을 중심으로”, 『의사학』 23:3 (2014), 429-468; “북한과학기술의 역사적 전개”,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2006), 375-400.

10 신효숙, “북한 고등인력의 양성과 발전(1945-1960)”,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2006), 98-131.

11 한선희·김옥주,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보건 의료계 사상 투쟁과 한의학의 과학화를 중심으로”, 『의사학』 22:3 (2013), 801-846.

정책을 취하던 북한이 1956년 말 이후 반종파 투쟁으로 시작된 사상 투쟁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의료 체계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유형의 보건 의료 인력으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956년부터 1961년까지 일어난 보건 분야의 사상 투쟁은 초기에는 낡은 사상 잔재를 가진 오랜 인텔리를 겨냥한 투쟁에서 시작되어, 1959년 이후로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해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자의 품성을 실천하는 집단주의적인 인간 개조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체제 형성기에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한 인텔리 문제에 있어 보건 의료 분야가 그것에 고유한 사상 투쟁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음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당성으로 철저히 무장한 새로운 세대의 보건 의료 인텔리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시기 보건 의료 분야의 사상 투쟁을 통해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북한 특유의 의사의 정체성과 사회주의적 보건 의료 윤리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방 후 북한의 인텔리 정책과 보건 의료

조선노동당은 당 창설부터 그 깃발에 낫과 망치와 더불어 붓을 표시하여 노동자 농민 뿐 아니라 인텔리를 혁명의 주요 세력으로 상정하였다(그림 1).¹² 인텔리는 지식과 기술로서 사회적 재부를 창조하는 근로자이며, 인텔리의 창조적 활동이 없이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할 수 없고 정신문화적 재부는 물론 물질적 재부를 늘릴 수 없으므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데서 노는 인텔리의 역할은 사회의 그 어느 계급과 계층도 대신할 수 없”으며 사회가 발전하고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지식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고 보았다.¹³

¹² 북한에서는 인텔리를 “일정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과학, 교육, 보건, 문학 예술, 출판 보도 부문을 비롯한 전문 분야에서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최희열, 『우리 당의 인텔리 정책』 (각주 1), 9]. 해방 직후부터 일관되게 인텔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북한의 인텔리 정책은 소련이나 중국과는 차별적인 것이었다. 이태섭에 의하면 “중국의 문화 혁명에서 인텔리가 대중의 공격 대상이었다면, 북한의 문화 혁명에서 인텔리는 대중이 도달해야 할 목표였다.” 이태섭, 앞 책, 464. 사회주의 나라들의 인텔리 정책 비교에 대해서는 윤여령, 앞 글; 변학문, 앞 글 참조.

¹³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텔리 정책』 (각주 1), 13-14.



그림 1. 조선 로동당 당기. 조선 로동당을 상징하는 낫과 망치, 붓을 든 손을 형상화하였는데 낫은 농민을, 망치는 노동자를, 붓은 지식인(근로 인텔리)을 뜻한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조선로동당> (2018. 3. 6. 접속)].

높은 문맹률과 부실한 교육 인프라를 물려받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꼭 필요한 지적 자산을 가진 인텔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에 따라 해방 직후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인텔리 양성에 힘을 쏟았다. 1946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은 사회주의 간부 양성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토대는 일제 강점기의 교육 기관과 인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다.¹⁴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모델로 하여 종합대학과 과학원을 창설하였고 각급 학교와 대학의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노동자, 농민 출신의 인텔리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대학을 운영해 본 경험이나 교과서를 편찬할 여력도 없었으며, 대학에서 가르칠 교원들과 교수조차 구할 수가 없었다.¹⁵ 소련의 경험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에 과학기술 인력이 긴요함을 절감했으나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북한은 일제 강점기에 교육받고 낡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것으로 평가받은 오랜 인텔리들도 포용하고 포섭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북한은 자국 내 인텔리를 양성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에 양성되어 출신 성분과 사상이 투철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있으면 포섭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는 오랜 인텔리 정책을 채택하였다.¹⁶ 특히 일제 강점기에 양성된 과학기술

¹⁴ 해방 후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 정책에 대해서는 각주 11의 김근배의 저작들과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I』 (각주 8), 41-123을 참조하라.

¹⁵ 최희열, 앞 책, 64.

및 보건 의료 부문의 인텔리들을 해방 후와 전쟁 중에 포섭하려 노력했던 과정은 이후 북한 정권에서 “어미 닭”을 통해 “새끼”를 치는 과정으로 비유되었다.¹⁷

인테리를 길러내는 사업은 몇 해 사이에 완성될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새끼 쳐나가는 과정으로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인테리를 새끼 치는 원종이 있어야한다.¹⁸

오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여야 근로 인민 출신의 새 인테리를 키워낼 수 있다. 근로 인민 출신 인테리를 새로 육성해내자면 그들을 키워내는 어미 닭과 같은 원종, 과학과 기술을 아는 인테리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로동 계급이 주권 전취를 위한 혁명 투쟁 과정에서는 자기의 인테리를 육성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당은 정권을 잡은 다음 낡은 사회에 복무한 오랜 인테리를 교양 개조하여 인테리 육성 사업에 적극 인입함으로써만 근로 인민 출신의 새 인테리를 키워낼 수 있다.¹⁹

노동당 창립 초기부터 북한은 오랜 인텔리들을 포섭하여 “어미닭 원종”으로 삼고, 이들을 통해 노동자 농민 출신의 인텔리를 “제2세 어미닭”으로 키워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새로운 인텔리들을 길러내는 방침을 세웠다.²⁰ 오랜 인텔리들을 관용하고 포섭하여 활용하는 한편으로 노동자 농민 출신으로 노동당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텔리 육성에 힘을 쏟는 정책이었다.²¹ 따라서 해방 후 북한의 보건 의료 부문에서는 인텔리들의 사상성보다는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오랜 인텔리들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출신 성분이 복잡하고 사상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열과 교양 개조 작업을 해야 했다.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에 이는 더욱 중요했는데, “로동 계급의 당이 자기가 직접 인테리들을 체계적으로 키워가지고 새 사회 건설에 착수할 수 없으며 낡은 사회가 길러낸 인테리

16 오랜 인텔리 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는 윤여령, “북한 인테리 정책 연구” (각주 8); 강호제 앞 책 참조.

17 신효숙, “북한 고등인력의 양성과 발전(1945-1960)” (각주 10), 103-104.

18 최희열, 앞 책 (각주 1), 32.

19 같은 책, 46.

20 같은 책, 46.

21 해방 후 1950년대 오랜 인텔리의 교양 개조에 대해서는 윤여령, “북한 인테리 정책 연구” (각주 8), 46-61 참조.

들, 따라서 구체적인 파악이 없는 낯선 인텔리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하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1946년 3월 “교육 부문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새로운 인텔리와 민족 간 부를 키우는 데는 교원들의 사상 의식이 중요하므로, 당 중앙의 지도 하에 “온갖 불순한 사상 요소들과 강하게 투쟁하는 한편 각급 학교 교원들을 다 료해 검토하여 교육 기관에 잠입한 반동분자들을 빨리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²³ 1946년 11월 진행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일제 사상 잔재와 봉건 사상 잔재를 뿌리 빼고 그들 속에서 나라의 주인된 자각과 혁명적 사업 기풍”을 세우기 위한 대중적인 사상 개조 운동으로 제기되었다.²⁴ 이는 사회 각 부문에서 전개되어 1946년 말부터 1947년 초 사이에 김일성 대학에서 당 중앙 위원회의 사상 검열 사업이 진행되었고, 1947년 1월부터는 김일성 대학의 교원 심사, 함흥 의학대학의 교원 심사 등이 이루어졌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인텔리 양성은 주요한 과제였다.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전염병과 방역 위생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고 사회주의 보건 의료 사업을 전개해 나갈 보건 의료 인력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북한에 남아있던 의사들은 천 여 명이 채 안 되었고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할 교수진은 더욱 부족했다. 게다가 일련의 토지 개혁과 국유화, 개인 병원의 인민 병원으로의 전환 등 사회주의 개혁으로 많은 의사들이 동요하여 월남하였다.²⁵ 북한에서는 1948년까지 3개의 의학 대학과 6개의 전문 학교를 세워 의학 교육을 확대하여 보건 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였다.²⁶ 대학과 학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족해진 교원들은 오랜 인텔리들로 충원되었다.

하지만 이렇듯 오랜 인텔리 정책에 따라 기존 인텔리들을 활용한 교육이 계속 되는 중에서도, 새로운 사회주의 보건 일꾼을 만들기 위해 평양의대와 함흥 의대 등 보건 의료 부문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교원들에 대한 교양과 검

²² 최희열, 앞 책, 58.

²³ 김근배, “북한 함흥의과대학 교수진의 구성” (각주 9), 714.

²⁴ 윤여령, 앞 글, 68.

²⁵ 김근배, 앞 글, 729-730.

²⁶ 북한 의학 교육의 간략한 역사와 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박운재·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의사학』 71 (1998), 61-74; 이혜경, “북한의 ‘보건 일꾼’ 양성정책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참조.

열 작업 또한 이루어졌다.²⁷ 함흥의대의 경우 1946년 4월, 1947년 4월, 1948년 1월 세 차례에 걸친 교원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사상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초기의 심사에서는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 소수의 사람들을 축출하기는 했으나 전문성이 있는 의사들과 의학자들은 과거에 일제에 복무한 전력이 있어도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전 국가적으로 정치 사상이 강조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시기에는 노동당의 주도로 대학 교원에 대한 검열 사업이 시행되었다. 교원들의 정치 사상, 사업 성적, 발전성을 심사한 결과 대다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을 대체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없었기에 대다수는 구제받았다. 북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세 번째 교원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사상성이 부족해도 북한 체제에 협조하고, 전문성이 떨어져도 실무 경험과 활동 경력이 있으면 교원으로 인정받았다. 그 결과 전문성에서나 사상성에서나 북한의 의대 교원들은 균질하지 않고 다양하였다.²⁸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쟁 중에도 김일성은 서울의 각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을 영입하려 노력하였다.²⁹ 전쟁 기간 중에 김시창, 리재복, 임문빈 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다수 북으로 가서 평양의학대학의 교원으로 활동하였다.³⁰ 전후에 각 의학대학과 의학 전문학교에서 보건 의료인 양성이 확대되었는데, 새로 요구되는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평양의학대학, 함흥 의학대학, 청진 의학대학의 우수한 졸업생들이 활용되었다.³¹ 남한 의과대학 교수 출신의 오랜 인텔리들이 북한 의학 대학에서 다음 세대의 교원들을 키워내는 “원종의 어미닭” 역할을 한 것이었다.

해방과 전쟁 이후 북한의 의학 교육에서 당과 정부의 목표는 의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당의 예방 의학적 보건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열렬한 정치 활동가인 새로운 유형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³² 해방 후 당이 소련에 파견했던 유학생들이 다수 귀국하여 의학 교육 사업을 발전시켰으며, 교육 내용에서

²⁷ 김근배, “북한 함흥의과대학 교수진의 구성” (각주 9), 722.

²⁸ 같은 글, 739-742.

²⁹ 이해경, 앞 글, 57-76.

³⁰ 이들 이외에도 김봉한, 신성우, 리정복, 김연희 등이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남북되었거나 월북하였다. 같은 글, 57-64.

³¹ 같은 글, 63.

³² 리명규, “우리나라에서 보건 간부 양성 사업의 발전”, 『인민 보건』 1958년 9월, 19-22.

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과 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혁명적 요구들을 포함하도록 학교 과정안과 교수 요강이 수 차례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졌다. 1958년 보건성 교육국 부국장 리명구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새로운 인텔리, 새로운 유형의 의사를 만들기 위해 전쟁 중에도 의학 교육을 한 결과, 보건 간부의 60% 이상이 새로 육성된 젊은 새 일꾼들이 차지하고 있어 의료 인력의 질적 구성이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³³

1958년 후반에 이르면 북한은 “제2세의 어미닭을 육성해 내는 모체로 삼았던 오랜 인텔리에 대한 의존 없이도 새 인텔리 육성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³⁴ 의학 교육 기관의 간부 대부분이 새 인텔리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들이 제2세의 어미닭이 되어 새끼를 치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인텔리를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1959년 보건 의료 분야에서 본격화된 오랜 인텔리 숙청의 배경이 되었다.

3. 8월 종파 사건과 보건 의료계 사상 투쟁

1) 8월 종파 사건과 대학의 사상 검열

1956년 8월 종파 사건은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차 대회에서 이루어진 스탈린 개인 숭배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연안계의 최창익, 서희, 윤공흙, 고봉기 등과 소련계의 박창욱, 김승화 등이 참여해 같은 해 8월 30일과 31일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김일성을 공격하여 권력에서 끌어내리려 한 시도를 말한다.³⁵ 이러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북한의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의 교수, 학생들과 해외 유학생들 사이에서 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해외에서의 반김일성 운동의 근절을 위해서 북한 정부는 1957년 1월 이후 사상 검열을

³³ 같은 글, 22.

³⁴ 인용은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텔리 정책』 (각주 1), 67.

³⁵ 1956년 2월 소련의 스탈린 비판, 10월 헝가리와 폴란드의 자유화 운동 등의 국제 상황과 8월 종파 사건 등 국내외 공개적인 반김일성 비판의 상황은 북한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신효숙, “북한 고등인력의 양성과 발전(1945-1960)” (각주 10), 98-131. 사회 갈등과 당내 갈등으로 나타난 8월 종파 사건을 자본 축적의 위기와 경제 정책 노선의 문제로 조망한 연구로는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각주 8), 45-80을 볼 것.

위해 해외 유학생을 소환하고, 1958년부터는 해외 유학생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1960년부터는 일체 파견하지 않게 되었다.³⁶

국내외 상황으로 동요하는 인텔리들을 정비하기 위해 교육계와 학계의 최고 교육 행정 기관인 교육 문화성과 종합대학에서 먼저 사상 검열과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³⁷ 1957년 3월 노동당 중앙위는 노동당 내각의 주요 관료들로 검열 위원들을 구성한 뒤 3개월간 교육 기관에 파견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사상을 검열하였다. 8월 초순 3개월간에 걸친 김일성대학의 중앙당 집중 지도를 총괄하는 대학당 전원 회의는 교수, 학생 교육 관계 간부 등 2천여 명이 참가하여 3일간 진행되었다.³⁸ 김정도, 송군찬, 림해, 김현수와 같은 교원들은 최창익, 박창옥, 김승화 등의 종파주의자와 결탁하여 “토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종파 행동을 정당화하고 당의 통일을 분열시켰다고 비판 받았다. 또한 이러한 교수들의 해로운 영향에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조하였음이 폭로되었다. 고등 교육 기관 뿐 아니라 중등 교육 기관 교원들도 검열과 숙청에 예외는 아니어서, 평안남도 한 도에서만 사상적 해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초·중교 교사 약 300명이 교체되었다.³⁹

과학원에서도 반종파 투쟁이 전개되어, 1957년 과학원 임시총회에서는 후보 원사로 있는 최창익을 과학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해 8월부터 시작된 과학원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집중 지도를 통해 당적 사상으로 무장한 새로운 “붉은 과학자”들이 과학원 지도부에 대거 등장하여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⁴⁰ 19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 대대적인 반종파 투쟁의 과정 속에서 정치, 군사, 경제, 공업, 노동, 교육, 과학, 보건,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중앙당의 집중 지도 아래 사상 투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사회 각 부문에서 인텔리에 대한 사상 검열과 숙청이 진행되었다.⁴¹

보건 분야의 인텔리에 대한 반종파 투쟁과 사상 투쟁은 1957년부터 1958년까지 수 개월에 걸쳐 평양 의학대학, 함흥 의학대학 및 대학 병원들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집중 지도에서 이루어졌다. 평양의대와 함흥의대는 북한에서 보건 의

36 신효숙, 앞 책, 116-119.

37 같은 책, 119-121.

38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각주 7), 580-581.

39 신효숙, 앞 책, 121.

40 윤여령, 앞 글, 111; 강호제, 앞 책, 170-174.

41 8월 종파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서동만, 앞 책, 529-589을 참조할 것.

료 분야의 학자와 교원을 길러내는 최고의 의학대학들로서 북한 인텔리 정책의 핵심 기관들이었다. 조선 의학회의 연구 업적 대부분을 두 의학대학에서 내고 있었으며, 의사, 약제사의 과반수를 두 대학 졸업생들이 차지하고 있었다.⁴² 1958년 5월 보건성 교육국 부국장 리명구는 헝가리 사태와 8월 종파 사건을 언급하며,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로 개조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제사들의 사상 의식 수준은 인민 보건의 사회주의적 과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그 구성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⁴³

반종파 투쟁과 위로부터의 사상 검열에 있어서 당 중앙 위원회의 집중 지도 방식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⁴⁴ 검열단은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현장에 파견되어 지내면서 검열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한 사람씩 철저하게 수 개월 동안 비판과 토론을 조직하여 매일 검열을 수행하였다.⁴⁵ 두 대학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집중 지도 결과, “일부 교원, 학자 및 학생 집단 속에서 소부르조아 사상 잔재인 자유주의, 가족주의 및 기술 지상주의 등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사상 단련이 부족하여 대학 사업에 일정한 저해를 주게” 되었으며, 그렇게 된 이면에는 “몇 몇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들의 음흉하고도 교활한 책동이 숨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⁴⁶

당 중앙위의 집중 지도에서 적발된 핵심적인 사상 독소의 첫째 내용은 당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였다. 대학 내 교수 교양 사업 및 과학 연구 사업 분야에서 이러한 당 정책에 대한 무관심은 일부 교원들이 “여전히 교조주의와 형식

42 리명구, “론설: 당 중앙 위원회 집중 지도 정신을 받들고 의학 대학 교육 사업을 개선 강화하자”, 『인민 보건』 1958년 5월, 4-7. 이는 의학 부문에서 부르조아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대해 『인민 보건』 1958년 호에서 처음으로 기술하고 있는 글이다.

43 같은 글, 4.

44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각주 8), 147-173.

45 저자인 김정기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월북한 뒤, 1963년 간첩으로 남파되었다 전향하여 수기를 남겼다. 1954년 송도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교수로 있던 중 1958년 가을부터 약 1년간 집중적으로 이어진 중앙당 집중 지도의 경험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그의 수기에 의하면, 중앙당 집중 지도는 평양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검열단이라는 지도 그룹을 조직하여 세밀한 계획 하에 현장, 또는 지방에 파견되어 최말단 세포에서부터 검열하기 시작했다. 중앙당에서 파견한 사람이 현장에 와서 “과거 생활에서 정치적인 잘못이 있으면 자백하라”고 하며 당에 대한 충성 여부를 검열했는데, 매일 오후 교실이나 기숙사 방에서 자기 비판, 토론, 비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김정기, “소위 중앙당 집중 지도”, 『밀파: 전향간첩의 수기』 (대영사, 1967), 281-288.

46 리명구, 앞 글, 5.

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 사상적이며 비 맑스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⁷ 당 정책이 철저히 침투 관철되지 못한 것들은 바로 “이 불순 분자들 특히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책동과 분리하여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당 정책이 침투 · 관철되지 못한 것은 “과학 지상주의”, “기술 지상주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과학 연구 계획의 출발점은 당적 방향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학위 논문 작성에 편리한 것”, “취미에 맞는 것”에 기본을 두기 때문에 연구의 집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대학 개별 연구자들의 “취미와 야량과 재간에 일임되어 버리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셋째, 일부 교원과 의사들은 학생들에게 의료 일꾼으로서의 인격과 품성 양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이었다. 대학 병원 내 일부 교원과 의사들은 공개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의료 기술은 돈벌이”, “의사는 특수한 기술자”라는 등 그릇된 발언을 하며 환자 선택과 치료 사업을 인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연구 사업과 기술 발전의 수단”을 첫 자리에 내세워서 학생 교육에 극히 유해한 영향을 주었다고 비판 받았다. 넷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과 사상 투쟁이 미약하게 전개되어 교원 인텔리 및 학생들 속에서 소부르조아 사상 잔재인 영웅주의, 자유주의, 가족주의적 경향들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었다. 두 대학과 병원 내 교직원들 사이에 동창, 동향, 사제 관계 등 온갖 낡은 사회의 사상 유물들이 잔존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비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집중 지도에서 엄중하게 비판되었다. 다섯째, 대학들에서 학생과 교직원 선발 배치 등용에 있어 학문적인 실력에 편중하여 선정했으며, 정치성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이 때문에 교원들과 학생들 대열에 경력이 좋지 못하거나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와 노동자 농민의 기본 군중들이 억압되고 불순한 자들이 핵심으로 간주되는 비계급적 현상까지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1957년부터 시작된 반종파 투쟁은 중앙당 집중 지도 사업과 대중 운동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1957년 12월 말부터 노동당 내부의 반종파 분자를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한 당중 교환 사업과 당 조직에 대한 중앙당 집중 지도 사업에서는 당 정책에 호응하는 열성적인 노동자들이 당원들로 배출되었고 당성이 강한 이들 핵심 당원들로 기층 당 조직을 개편하였다.⁴⁸ 두 의학대학에 대한 집중 지도에 대해 당 중앙 위원회는 의학 교육 기관과 보건 기관들에 대해

47 같은 글, 5.

48 이태섭, 앞 책 (각주 8), 157.

직접적 지도로 계급 교양 사업을 통해 순결성을 보장하고 계급적 각성과 정치적 열성의 제고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⁴⁹ 이들 의학대학에서의 집중 지도에서는 기술이나 전문성보다 사상성과 노동 계급성과 같은 정치적인 표징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장기적이며 심오한 사상 투쟁과 군중들의 창발성이 결합”되어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집중 지도는⁵⁰ 두 의학대학에서의 핵심 세력을 노동 계급 출신의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⁵¹

2) 보건 의료의 사상 투쟁: 1958-1959년 사상 투쟁의 특징

1956년 말 반종파 투쟁으로 시작하여 천리마 운동에 이른 대중의 혁명적 열기는 1958년 9월 당 중앙 위원회가 당원들에게 보내는 붉은 편지에 대한 토의 사업으로 더욱 고조되었다.⁵² 모든 당원에게 집단적 혁신을 통해 사회주의 낙원의 조속한 건설을 직접 호소하는 이 붉은 편지는 1956년 12월부터 시작된 대중 운동을 당 중앙 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결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보건 의료계에서는 1958년 10월 30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열린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에서 집단적으로 “붉은 편지를 받들고” 보건 일꾼들이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결의하는 상향식 대중 운동으로 붉은 편지 토의가 이루어졌다.⁵³ 전국 각지에서 570여 명의 보건 일꾼 열성자들이 모인 가운데 홍명희 부수상, 당 중앙 위원회 김창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가 전달되었고, 이어서 “보건 위생 사업을 혁신할 데 대한” 리병남 보건상의 보고가 있었다. 그 내용은 제1차 5개년 계획을 1년 반 앞당겨 완수하도록 제시한 당의 결정을 받들어 보건 부문에서는 의료상 방조를 더욱 확대하고 생산 현장에 접근하게 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 전염병과 치료 예방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더해 리병남은 보건 위생 사업의 집단적 혁신을 위해 보건 일꾼 대중을 창발성을 발휘하여 1인 1건의 창의 고안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에 반대해 투쟁할 것을 보건 일꾼들에게 요구하였다.⁵⁴

49 “권두언: 새해 1958년을 맞이하면서”, 『인민 보건』 1958년 1월, 3-4.

50 리명구, 앞 글 (각주 42), 7.

51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9), 556.

52 1958년 9월 “붉은 편지”에 관해서는 이태섭, 앞 책, 187-189; 강호제, 앞 책 (각주 8), 230-231 참조.

53 “소식: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 진행”, 『인민 보건』 1958년 12월, 82-83.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건 부문 내에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보건 일꾼들 모두가 “당의 의지대로 판단”하며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당 정책과 노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현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리마를 탔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혁명 운동의 전반적 고조의 시기에는 한두 사람의 동요와 담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전진 운동을 방해하며 혁명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천리마를 타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 부문 열성자들에게 리병남은 인민의 인텔리로서의 역할을 주지시키며 당의 판단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옹호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⁵⁵ 또한 “보건 기관을 핵심 일꾼들로 튼튼히 꾸미어 혁명적 경각성을 더 한층 높이며 반혁명 분자들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하므로 한시라도 경각성을 늦추지 말고 당 중심으로 대열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회에서 채택된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 결의문에서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을 1년 반 이상 단축하기로 하고 전진 운동을 저해하는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에 반대하여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⁵⁶ 이를 기점으로 당의 붉은 편지와 결의문 토의 사업이 보건 부문의 각 조직에서 벌어지게 되어 밑으로부터의 사상 투쟁이 1959년도를 기점으로 심화되었다. 반종파 투쟁 이후 중앙당 집중 지도와 붉은 편지 토의 사업 등 당 중앙에서 말단 대중 하부 조직으로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보건 의료 부문에서 당의 정책은 절대화되었다.⁵⁷

1959년 초 사상 투쟁의 과제는 인민 보건 사업에서 혁신을 통한 질 제고와 관련되어 강조되었다.⁵⁸ 더 많은 일을 더 질적으로 보장하는 질 제고의 문제는 보건 일꾼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여 당의 보건 일꾼이자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붉은 투사로 육성하는 문제로 규정되었다.⁵⁹ 그 동안 인민 보건 사

54 리병남, “보건 위생 사업을 혁신할 데 대하여: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에서 한 보고”, 『인민 보건』 1958년 12월, 5-14.

55 같은 글, 14.

56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 결의문”, 『인민 보건』 1958년 12월, 2-4.

57 이태섭에 의하면, 반종파 투쟁 이후 일련의 사상 투쟁을 통해 북한 사회 내 모든 조직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강화가 이루어지며 당 정책의 절대화와 당 중앙 위원회의 리더십이 절대화되었다. 이태섭, 앞 책, 147-173.

58 “부단한 혁신, 부단한 전진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1월, 2-4; “보건 위생 사업에서 그 의 질을 더욱 높이자”, 『인민 보건』 1959년 1월, 5-6.

업의 질이 제고되지 못한 이유는 보건성을 비롯한 각급 보건 행정 기관이 보건 일꾼들의 기술 실무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었고 사상의 문제를 등한히 했기 때문이며, 사상 투쟁을 기피하며 “호상 융화 묵과”하려는 경향이 일부 보건 일꾼들 속에 남아있어서 보건 기관 내에 혁명적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목되었다.⁶⁰

1959년 본격화된 보건 의료 분야의 사상 투쟁은 여타 분야에서 강조되었던 소극성, 개인주의, 이기주의, 교조주의, 형식주의에 대한 투쟁 뿐 아니라, 예방 의학의 선차성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의학 이론으로서 파블로프(Ivan Pavlov, 1849-1936) 이론의 교조화를 위한 투쟁, 기술 지상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 등 고유의 요소를 지니고 진행되었다.

첫째로 가장 집요하게 사상 투쟁을 수행해야 할 내용은 예방을 치료에 선행시키라는 당의 인민 보건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보건 의료의 과제는 전염병을 근원부터 퇴치하여 예방하고 노동자 농민들의 노동력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현장과 지역과 가정, 학교에 위생 문화 운동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데, 오랜 인텔리들은 앉아서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하고 보수를 받는 일제 강점기 개인 개업의 제도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에 젖어 있었다고 비판 받았다. 이처럼 치료를 예방보다 우선하는 경향은 융화 묵과할 것이 아니라 사상 투쟁을 통하여 극복해야 했다.⁶¹ 동시에 예방 의학적 방향을 옹호 관철하는 정도는 보건 일꾼들이 가진 당 보건 정책의 충실성 여하를 재는 척도가 되었다.⁶² 그러나 위생 운동과 예방 의학 활동을 강조하면서 환자 진료나 연구 활동을 제약하는 당 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보건상 리병남은 동원되지 않는 보건 일꾼들에게 부르주아 사상의 여독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보건 일꾼들 사이에서 “예방은 시기 창조”라든지 “자재 없이 위생 개조 사업을 할 수 없다”, “병원 내 의사들은 위생 방역 사업에 동원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이 오가는 것에 대해 “당의 의도에 대하여 범죄적 발언”이며 노골적인 태만이자 항거

59 김호철, “당 보건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2월, 10.

60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4월, 2-5; 리병남, “보건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이다”, 『인민 보건』 1959년 4월, 6-11.

61 김호철, “당 보건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2월, 10.

62 같은 글, 10.

라고 규탄하였다.⁶³ 즉 치료 사업을 예방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당의 인민 보건 정책을 파괴하는 반혁명 분자들로서 사회주의적인 인민 보건 건설에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었다. 『인민 보건』은 예방보다 치료를 강조하거나 치료와 예방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투쟁이 “인민의 신성한 의무”로서 전 군중적 투쟁으로 진행하여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자”고 주장한 혁명의 논설을 통해 보건성의 입장을 나타냈다.⁶⁴

둘째로 사상 투쟁을 벌여야 할 내용은 사회주의 의학 이론으로서 파블로프 이론의 교조화를 위한 투쟁이었다. 획득 형질의 유전과 조건 반사에 의한 인간 개조의 가능성을 이론화한 파블로프의 생리학설은 파블로프 사후 1950년 소련에서 선진적인 사회주의 의학으로 신격화되고 도그마가 되었다.⁶⁵ 북한에도 1958년 선진 사회주의 의학의 도그마로서 파블로프 의학 이론이 도입되었다.⁶⁶ 모든 보건 일꾼들이 파블로프 학설을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한 사회주의 의학”으로 “심오하게” 연구하며 이를 임상 진료에도 적용하고 후학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요구받았다. 북한 지도부는 “우리 의학은 당의 의학”이라고 천명하며,⁶⁷ 오랜 인텔리 의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미국, 독일, 일본의 의학 이론들을 제거하고 오직 파블로프의 학설만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랜 인텔리 의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구의 의학 이론은 완화된 회의론(mitigated skepticism)에 입각하여 반증 가능한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파블로프 학설이라는 특정한 이론을 무조건 옳은 절대화된 이론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며 파블로프 개인 숭배와 동일한 것이었다.

당의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에 서구 의학을 교육받은 오랜 인텔리 의학자들이 강단에서 멘델(Gregor Mendel, 1822-1884)-모르간(Thomas Morgan, 1866-1945)의 유전학과 비르호(Rudolf Virchow, 1821-1902)의 병리학 등 서구 의학

⁶³ 리병남, 앞 글, 7.

⁶⁴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자”, 『인민 보건』 1959년 2월, 17.

⁶⁵ 소련에서 파블로프 의학이론이 소련의 공식 이론으로 교조화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옥주, “20세기 중엽 소련의 의학사상: 파블로프이론과 스탈린주의의 결합”, 『한국과학사학회지』 22:2 (2000), 238-261 참고.

⁶⁶ 한선희 외,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 (각주 11), 801-846.

⁶⁷ 리병남, “보건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이다”, 9.

의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자본주의 의학 이론을 유포하는 반동적, 반당적 행위였다.⁶⁸ 이러한 부르주아 반동 의학과 이론을 고수하려는 오랜 인텔리들의 경향에 대해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⁶⁹ “낡은 의학 학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의 무기”로서 파블로프 학설을 “심오히 연구”하고 체화하여 반동적인 자본주의 의학 사상을 일소시킨 자만이 당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붉은 보건의 의료인이 될 수 있었다.⁷⁰ 그렇게 되지 못한 오랜 인텔리들은 결국 당으로부터 비판받고 붉은 보건의 의료 일꾼 대열에서 숙청을 당하게 되었다.

셋째, 기술 지상주의에 대한 투쟁이었다. 보건성의 공식 입장은 “보건 부문에서 기술 지상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하지 않고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⁷¹ 기술 지상주의는 당 정책과 사상보다 기술을 우선하며 “정치와 과학을 분리시키려는 사상”으로 의학 분야에서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상 투쟁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되었다.⁷² 의학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오랜 훈련으로 습득해야 하는 분야로서 기술이 중요시된다. 고난이도의 수술처럼 전문성과 기술 수준이 높은 치료는 오직 그 기술을 가진 실력 있는 대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여타 부문에 비해 의학 기술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권위와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분야였다. 의학 기술은 단시간에 습득될 수 없고, 오랜 기간 동안 교수나 선배 의사에게 직접 도제적으로 배워야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과 권위에 대해 학생들이나 후학들이 복종하고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젊고 사상성이 투철하지만 실력이 부족한 젊은 의사들이나 학생들이 의학 기술의 실력은 뛰어나지만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대가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 보건상 리병남은 보건 일꾼들의 사상 투쟁을 촉구하는 1959년 4월 논설에서 “우리 의학은 당의 의학”임을 강조하며 기술 지상주의가 바로 “당성을 거세”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⁶⁸ 같은 글.

⁶⁹ 홍학근, “의학 과학 연구 사업의 질을 제고할 데 대한 몇 가지 문제”, 『조선 의학』 6:2 (1959년 4월), 6.

⁷⁰ 편집부, “현대 의학의 기본 사상으로서의 파울로브 학설: 파울로브 탄생 110주년에 제하여”, 『조선 의학』 6:5 (1959년 9월), 7.

⁷¹ “권두언: 보건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보건 부문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자(4월 26일 로동 신문 사설 전제)”, 『인민 보건』 1959년 5월, 17.

⁷² 홍학근, “의학 과학 일꾼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연구 사업에서 질을 제고할 데 대하여”, 『조선 의학』 6:5 (1959년 9월), 12.

“기술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일꾼들은 “기술의 신비성”을 운운하면서 어떠한 힘도 자기들의 기술을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그릇되게 인식하면서 의학에서의 당성과 계급성을 거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꾼들은 흔히 정치와 기술을 별다른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치 학습은 마치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도리어 “메스 끝에 무슨 당성이 필요한가”하는 등으로서 보건 일꾼들 속에서 당성을 거세하려고 한다. (중략) 인민에 대한 봉사성이 극히 희박하며 사회적 비판과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으려 하지 않으며 당의령도를 거부하면서 당과 인민의 충실한 보건 일꾼으로 복무하려고 하지 않고 “기술”의 가면을 쓰고 개인리기에 몰두하며 공명을 세우려고 날뛰고 있었다.⁷³

오랜 인텔리들은 그 동안은 정치나 당 정책에 무관심해도 자신의 전문성과 의학 기술을 기반으로 진료와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며 지낼 수 있었으나, 이제 세상이 급격히 달라졌다. 당의 입장은 “인민의 리익을 떠난 어떠한 기술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⁷⁴ 해방 직후 의학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텔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제2세대의 사회주의 붉은 의학자들 양성에 오랜 인텔리들이 꼭 필요했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반종파주의 운동을 시발로 하여 더욱 격화되는 사상 투쟁의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의한 권위를 내려놓고 아래로부터의 비판을 받아야 했으며 당성과 철저한 사상성을 요구받았다.

3) 1959년 4월 전국 보건 일꾼 회의와 사상 투쟁의 전면화

1958년 말부터 격화되었던 보건 부문의 사상 투쟁은 1959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김일성을 포함한 당 중앙 위원회 위원들과 정부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해 사상 투쟁을 촉구한 이후 전면화되었다.⁷⁵ 이 회의에는 북한 각지에서 모인 전국 보건 일꾼 대표들, 중앙 및 지방 당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일꾼들 1,500여 명과 김일성을 위시한 당 중앙 위원회 핵심 세력들, 보건상 및 기타 상(相)들, 당 중앙 위원회 부장들이 다수 참가하였다(그림

73 리병남, “보건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이다” (각주 60), 9.

74 “권두언: 보건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보건 부문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자” (각주 71), 17.

75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진행”, 『인민 보건』 1959년 5월, 63.

2).⁷⁶ 1958년 홍명희 부수상, 당 중앙 위원회 김창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570여 명이 모인 전년도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비해, 김일성과 당 중앙위의 핵심 세력이 직접 참석해서 전국 보건 일꾼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상 투쟁을 요구한 1959년 4월의 회의는 규모로 보나 정치적 중요성으로 보나 이후 보건 의료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사상 투쟁을 예고한 것이었다.⁷⁷ “낡은 사상 요소를 청산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보건 사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김일성과 당 중앙 위원회가 전국의 보건 일꾼 전체에 대해 직접 보건 부문의 전면적인 사상 투쟁을 요구한 것이다.⁷⁸



그림 2. 1959년 4월 21-24일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주석단. [출처: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 드리는 편지—1959년 4월 24일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인민 보건』 1959년 5월, 6-7]

이 회의의 기초 발제를 맡은 리주연 부수상은 개회 직후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보고하였다.⁷⁹ 그는 보건 일꾼들은 그 성원의 절대 다

⁷⁶ 1959년 4월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참여한 감창만, 박정애, 김광협, 정일룡, 남일, 리효순, 리종옥, 하양천, 김익선, 리주연 등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당의 핵심 세력들로 1961년 제4차 당 대회에서 정치위원과 중앙위원이 되어 당 권력의 핵심에 계속 있게 될 사람들이었다.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4차 당 대회에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당 상무위원회 명칭이 당 정치위원회로 바뀌고 모든 권한이 이에 집중되었다. 이때 선출된 당 정치위원 11명은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리효순, 박정애, 김광협, 정일룡, 남일, 리종옥이었는데, 이 중 1959년 4월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 8명이 들어있다.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각주 7), 795-796.

⁷⁷ 회의는 상당한 열기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당과 정부 지도자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자 참가자들은 총 기립하여 오랫동안 그칠 줄 모르는 박수를 보내”었고 “회의장은 당과 정부 지도자들을 직접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참가자들의 흥분과 감격 그리고 무한한 환희로 들끓었다”,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진행”, 63.

⁷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공화국의 전체 보건 일꾼들과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참가자 동지들에게—1959년 4월 24일”, 『인민 보건』 1959년 5월, 2.

수가 기술 인텔리들이므로 어느 부문보다도 인텔리들을 노동 계급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킴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하는데, 해방 후 당시에 이르기까지 보건 일꾼들에 대한 교양 사업은 거의 방치되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의 보건 정책을 가로막는 부르주아 사상 잔재를 빠른 시일 내에 창산하고 당적 사상 체계를 확고하게 수립하는 문제라고 지적되었다.⁸⁰ 이어 3일간 30여 명의 각 지역 각급 보건 일꾼들이 토론을 진행하였다.⁸¹ 소식에 의하면, 이들 토론자들은 “날카로운 비판과 사상 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한결같이 인민 보건 사업이 당과 혁명의 기대에서 아직 거리가 먼 이유는 일꾼들의 사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참가자들과 공화국의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박정애 부위원장이 낭독하였다. “인민 보건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인 고리는 보건 일꾼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는 일이므로, “자본주의 사상 관점, 낡은 사업 태도를 급속히 퇴치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완강히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⁸² 이에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참가자들은 보건 일꾼들 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 사상 잔재가 당의 보건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임을 인정하고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당 정책을 항상 깊이 연구하며 당 정책에 대한 형식적 태도와 사소한 왜곡도 결정적 반대 및 관철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하였다.⁸³

이 회의에 참석한 김일성은 “보건 일꾼들은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되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보건 일꾼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부르주아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⁸⁴ 북한에서는 1958년 8월 사회주의 의료 제도가 확립되어 개인 의사도 개인 병원도 없이 인

79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서 한 리주연 부수상의 보고(요지)”, 『인민 보건』 1959년 5월, 8-17.

80 같은 글, 13.

81 전국 보건 일꾼 회의 토론 중 일부를 “부르조아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인민 보건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으로 20페이지에 걸쳐 실었다. 『인민 보건』 1959년 5월, 20-39.

82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공화국의 전체 보건 일꾼들과 전국 보건 일꾼 회의의 참가자 동지들에게—1959년 4월 24일”, 『인민 보건』 1959년 5월, 2-4.

83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 드리는 편지—1959년 4월 24일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인민 보건』 1959년 5월, 6-7.

84 홍순원, 『조선 보건사』 (각주 51), 547.

민을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 보건 제도가 세워졌으나,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지난날 보건 부문에서 부르주아적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잘 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참된 인민의 보건 일꾼이 되기 위하여 낡은 사상 잔재와 투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단순히 “지난 날 잘살던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르주아 사상을 반대하며 의식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자들을 반대”하는 것임이 강조되었다.⁸⁵

부수상 리주연은 이 회의 이후 진행되어야 할 사상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 천명하였다. 특히 “종파의 온상으로 되는 가족주의, 지방주의, 기술 지상주의 편향들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 일꾼들 속에서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적극 장려해야한다는 것이었다.⁸⁶ 병원이나 약국에서 함께 일하는 보건 일꾼들이 서로의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사상 투쟁으로 극복하는 대신 “융화 묵과하는 가족주의”는 대표적으로 청산해야할 낡은 사상 잔재였다.⁸⁷ 한 약국장은 낡은 사상 잔재와 사업 작풍이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약국 성원 중 누가 과오를 범하거나 국가에 손실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도 “일하느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든가 “우리 끼리나 알고 앞으로 시정하자”는 등 무원칙하게 싸고돌면서 가족주의적 분위기에 사로잡혔다고 스스로 비판했다.⁸⁸

리주연이 제시했듯이, 이러한 가족주의, 지방주의, 기술 지상주의 청산을 위한 도구는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이었다.⁸⁹ 병원은 환자 치료를 위해 의학 기술이 높은 의사, 준의 등 상급 일꾼의 지시를 간호원, 간병인 등의 중급 일꾼이 받아서 수행하는 위계 질서가 강한 곳이라 이는 특히 쉽지 않았다. 가족주의 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지상주의 청산이 같이 필요했다. 4월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서 한 간호원은 “낡은 부르주아 사상 여독의 뿌리는 일제 시대 물려받은 소 부르주아 사상, 기술이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

85 김일성, “보건 일꾼들은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되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13 (1959.1-1959.12)』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260.

86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각주 79), 13.

87 홍학근, “의학 과학 일꾼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연구 사업에서 질을 제고할 데 대하여—의학 과학 연구원 총회에서의 보고 (요지)”, 『조선 의학』 6:5 (1959년 9월), 11.

88 리상옥(박천군 약국장),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약물적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에서 얻은 경험”, 『인민 보건』 1959년 6월, 6.

89 이 시기 북한사회 전반에서 벌어진 반(反)가족주의, 반(反)지방주의에 대한 설명은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각주 8), 158-165 참조.

로 생각하는 극단의 기술 지상주의가 지배해서 기인”하며 “기술 일꾼 가운데 잘못을 서로 싸고들며 가족주의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기술의 신비주의로 인하여 의사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의 전진을 방해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토론에서 지적했다.⁹⁰ 회의 직후 게재된 『로동신문』 사설도 이 점을 지적하였다.

일부 보건 기관 지도 일꾼들과 이 부문 내 당 단체들은 당 정책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향들과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적지 않은 경우 비판 사업이 마비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부 보건 기관들에서는 간호원은 준의를, 준의는 의사를 비판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가족주의와 자유주의적 경향이 묵과되어 왔다. 이것은 지난 시기 부분적으로 불순 분자들이 보건 기관 내에 잠입할 수 있는 틈을 주었다.⁹¹

1959년 4월 이후 『인민 보건』은 밑으로부터의 사상 투쟁이 전개되어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했다. 박천군 군병원에서 “간호원이나 간병원이 준의나 의사들에게 동지 호상간 결함을 시정하여 주기 위한 비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결과, 원장을 비롯한 지도 일꾼들이 “관료주의적이며 개인 리기주의적 결함들이 존재하였다며 군내 보건 일꾼들의 옳은 충고와 비판을 허심히 접수하고 그를 시정하기 위한 길에 들어”섰다는 내용이었다.⁹²

1959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보건 의료계에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토의를 통해 사상 투쟁이 진행되었다. 당 중앙위의 지도하에 보건성이 전국적 행정 조직을 통해 각 지역 말단 보건 조직에 이르기까지 당 중앙위 편지와 김일성의 교시를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지도 사업을 진행하였다.⁹³ 보건 의료인들 전체에게 행정 조직과 당 조직을 통해서 해설·침투시켜 부르주아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강화하는 사업이었다. 1958년 8월에 확립된 사회주의적인 인민 보건 제도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건 일꾼들의 의식 사이의 모순

90 “평안남도 중앙 병원 간호원 정운자 동무의 토론 (요지)”, 『인민 보건』 1959년 5월, 33.

91 “권두언: 보건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보건 부문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자” (각주 71), 17.

92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정신을 받들고 사상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박천군 내 보건 일꾼들”, 『인민 보건』 1959년 6월, 43.

93 최창석(보건성 부장),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실천 정형을 총화하는 보건 일꾼 회의 보고(요지)”, 『인민 보건』 1959년 7월, 2-14.

에 대해 새로운 사회 제도에 부합되도록 보건 일꾼 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변화 시키어 붉은 보건 일꾼으로 개조하기 위함이었다.⁹⁴ 이것은 북한 노동당의 인텔리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면 인텔리의 사상은 생산 관계를 반영하여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상 교양과 사상 투쟁을 들이대어”야 하며, “사상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가져낼 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이었다.⁹⁵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편지 접수 투쟁”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편지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매 개인이 편지 내용을 한 조목씩 내놓고 자기 사업과 결부시켜 연구하고 학습하여, 그릇된 점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고 상호 비판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일상화하는 과정이었다.⁹⁶ 편지 접수 투쟁은 지난 기간 사업에서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향후 혁신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당 정책을 연구하고 그를 자기 사업과 결부시켜 토론했으며,⁹⁷ 때로는 자신들의 결함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보건 일꾼들이 인민 속에 들어가 비판적인 의견을 듣고 사업을 평가 받았다.⁹⁸ 또한 사업상 나타난 결함이나 지난 기간 사업을 놓고 상호 토론하고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한 비판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 중앙위 편지 구절을 자기 사업과 결부하여 연구 토론하는 토론회에서는 매개 일꾼들이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연구에서 자기의 결함들을 찾고 시정하도록 하였다.

함흥 의학대학 병원에서는 두 달 여에 걸쳐 보건성의 집중 지도를 받으며 낡은 사상 잔재로 인한 결함들을 폭로하고 비판한 경험을 보고했다.⁹⁹ 예를 들어, 편지 연구 과정에서 외과 간호장은 일 년 전 급성 장 폐색증으로 응급 수술이

94 과도기의 집단주의적인 사회 제도와 개인주의적인 의식과 생활 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사상론에 대한 논의로는 이태섭, 앞 책, 193-194를 볼 것.

95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텔리 정책』 (각주 1), 94-97.

96 “비판: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정신이 왜 사업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가”, 『인민 보건』 1959년 6월, 58-59.

97 “일꾼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강원도 중앙 병원에서”, 『인민 보건』 1959년 6월, 50.

98 지봉준(본궁 화학공장 병원 원장),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 당 중앙 위원회 편지를 받들고 우리는 봉사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민 보건』 1959년 7월, 18-19.

99 리영구(함흥 의과 대학 병원), “사인 검토회 및 림상 비판회에 대한 몇가지 문제”, 『인민 보건』 1959년 11월, 21.

필요했던 환자에 대해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환자와 그의 보호자들이 수술에 대한 공포로 인해 수술을 거부하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술 거부 확인서”라는 한 장의 종잇조각을 받고 수술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폭로 하였다. 이러한 비인도주의적인 무책임한 태도는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르주아 사회 제도 하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이므로 당 중앙위의 편지를 “지난 기간의 자기 사업과 결부시켜 심오하게 연구하여 우리를 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악습의 여독을 결정적으로 청산”해야 했다.¹⁰⁰

1959년 4월 회의 이후 보건 분야 사상 투쟁의 전면화는 보건성의 권력 지형의 변동과 연관되었다. 1948년 보건국 부국장에 임명되어 1957년까지 보건성 보건부상으로 활동했던 류기춘은 1959년 6월부터 공식 문건에서 반당 분자로 비판 받았다.¹⁰¹ 당과 정부는 류기춘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건성 내부와 보건 행정 인력들에서 쫓아내고 보건성을 일신하여 전국적인 사상 투쟁을 주도하였다.¹⁰² 류기춘에 대한 비판은 기술 지상주의, 당성과 사상성을 보지 않고 기술 전문성만 중시하여 보건성과 보건 행정 간부들을 배치한 것, 치료와 예방의 병진으로 당 정책을 집행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류기춘은 8월 종파 사건을 주도한 연안계 최창익과 연관된 반당 분자로 공개적으로 비판되었다. 이후 초대 내각부터 보건상이었던 리병남도¹⁰³ 해임되고 1960년 초부터 최창석이¹⁰⁴ 보건상

¹⁰⁰ 김순자(개성 중앙 병원 외과 간호장), “독자연단: 인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허용될 수 없다”, 『인민 보건』 1959년 7월, 57.

¹⁰¹ 류기춘은 1906년 경기 양주 출신으로 1927년 제일고보를 나와 1930-1931년 조선 공산당 재건준비위, 공청 야체이카 조직, 가두 야체이카 조직에 관여했다. 1934년에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 한 뒤, 경북 안동에서 “코민테른 크립” 활동으로 1년 6월 징역 후 고향 양주에 개업하였다. 1948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보건국 부국장을 역임하였고, 1948년 9월 내각 출범으로 보건성이 설립된 이후 195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성 부상(副相) 자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공식 방문단에 정부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1957년 1월 『인민 보건』에 보건성 부상 류기춘의 원고가 실린 것을 보아 그 이후에 숙청된 것으로 보인다. 허윤정·조영수, “해방 직후 북한 의학교육의 형성: 1945-1948”, 『의사학』 23:2 (2014), 239-268 중 261.

¹⁰² 배성률(보건부상), “보건 행정 지도 사업을 대중의 양양된 기세에 따라 앞세우자”, 『인민 보건』 1959년 6월, 3; 최두광(보건성 국가 위생 검열 원장), “예방을 치료에 선행시키는 것은 우리 당 보건 정책의 기본이다”, 『인민 보건』 1959년 6월, 11-12.

¹⁰³ 리병남은 충남 천안 태생으로 해방 직후 경성대학 의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과학자동맹, 민주주의민족전선 등 좌익 계열의 사회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남로당계였다. 1948년 4월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으로 올라갔다(김근배, “북한 함흥의과대학 교수진의 구성, 1946-48” (각주 9), 73). 서동만은 반종파 투쟁의 여파로 권력이 재편될 때인 4차 당 대회 이전에 리병남이 해임되었으나 사망 후 애국열사능에 묻혔기 때문에 정치적

이 되었다.¹⁰⁵ 리병남과 류기춘은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활발히 벌인 남로당계였다. 1948년 초대 내각에서 각각 보건성 보건상과 보건부상으로 임명되어 1953년의 남로당계 숙청에도 살아남아 활동을 계속하였으나, 반종파 투쟁에서 이어지는 사상 투쟁을 뚫고 살아남지는 못하였다. 이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출신으로서, 같은 대학 출신으로 북한의 의학계를 주도했던 오랜 인텔리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 비판자들은 이들이 바로 이러한 오랜 인텔리와의 인맥을 통해 기술 지상주의를 유포하고 “안온하고 무비판적인 가족주의와 지방주의”를 존속시켰다고 비판했다.¹⁰⁶

의학자들과 의사들이 가진 것으로 비판받은 가족주의는 학벌과 관련이 있었다. “평의대 출신이니, 함의대 출신이니 하면서 종파의 온상인 지방주의와 가족주의 분위기 속에서 결함을 서로 싸고돌며 비판의 무기를 녹슬게 함으로써 결함들이 그대로 존속되어 왔다”는 병원 초급당 위원장의 지적에 더하여,¹⁰⁷ 보건부상 최창석은 학벌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동창, 사제 관계, 직위 관계 등의 가족주의가 불순한 사상 독소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¹⁰⁸ 출신 학교 중심의 가족주의는 일제 강점기에 오랜 인텔리들을 배출한 “성대”라고 불린 경성제국대학

숙청이 아니었다고 본대[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각주 7), 788]. 탈북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연구에 의하면 리병남은 임상연구소로 강등된 후 온백군에서 추방 생활 중 1980년대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애국열사능에 묻혔다고 한다[이혜경, “북한의 ‘보건 일꾼’ 양성정책 연구” (각주 26), 59].

¹⁰⁴ 최창석(崔昌錫, 1916-1998)은 평양 출신으로 평양광성중학, 평양의전을 나와 1945년 9월 평남인민정치위 보건부장, 1947년 북조선인민위 보건국 의무부장, 1948년 보건성 의무국장, 1954년 4월부터 1966년 10월까지 보건성 보건부장, 보건상을 역임했다. 『인민 보건』에는 1957년부터 보건부상으로, 1960년 8월부터는 보건상으로 나온다. 1966년 함흥의학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보건조직학』 (1958)을 저술하고 많은 보건조직일꾼들 양성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50여 년간 보건 부문의 중요한 직책에서 당의 예방 의학적 방침을 관철하며 인민 보건 사업과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 세우는 사업에 변함없는 헌생을 바쳤다”고 평가된다.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최창석, <http://www.cybermk.net/infoText/InfoHumanDetail.aspx?mc=EJ0401&hid=EH020300012309&rightType=3&direct=1> (2018. 4. 14. 접속)

¹⁰⁵ 보건상 리병남은 1959년 4월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참석했으나 특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 회의 이후 전국적으로 전개된 보건 분야의 사상 투쟁은 보건부상 최창석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¹⁰⁶ 최두광(보건성 국가 위생 검열 원장), “예방을 치료에 선행시키는 것은 우리 당 보건 정책의 기본이다”, 『인민 보건』 1959년 6월, 11.

¹⁰⁷ “평북도 중앙 병원 초급당 위원장 리천우 동무의 토론(요지)”, 『인민 보건』 1959년 5월, 29.

¹⁰⁸ 최창석(보건성 부장), “론설: 자본주의 사상 관점, 낡은 사업 태도를 급속히 퇴치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자”, 『인민 보건』 1959년 7월, 4.

의학부나 “경의전”이라고 하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들 뿐 아니라 해방 이후 북한에서 새로운 인텔리들을 키워낸 평양의대, 함흥의대의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출신 학교가 좋고 실력이 뛰어난 의학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서 의학과학 연구원장 홍학근은 “전체 의학 과학 일꾼들은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의 하나인 학벌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를 철저히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⁰⁹

1959년 4월 이후 보건 의료 부문의 사상 투쟁을 거치는 동안 “기술 지상주의”라는 말은 저주의 단어가 되었다. 최창석은 1959년 5월 말 중앙당 상무위원회에서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언급하며 지난 기간 보건성과 류기춘의 문제는 “당 정책을 실천할 대신 기술만 내세우는 기술 지상주의에 빠져 당의 보건 정책 실현에 지장을” 준 것이며, 이들은 “‘기술적 지도만 한다’, ‘정치 병원을 만들겠는가?’, ‘당 결정을 연구하여 정치가가 되겠는가?’ 하면서 정치 사업을 홀시”하였다고 비판하였다. 1959년 8월 량강도 보건 일꾼 회의에서 류기춘은 기술 지상주의의 대명사로 쓰였다.

낡은 사상 잔재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기술 만능을 고집하면서 정치와 기술을 분리시키며 나아가서는 당의 령도까지 거부하는 기술 지상주의이다. 부천군 병원장 허형범은 기술적인 지도만 잘하면 된다고 하면서 “군 보건부장은 기술이 없으므로 지도를 받기 곤란하다”라고 말하며 도 중앙 병원 기술 부원장 한성기 동무는 당의 지도를 시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초급당 단체 위원장이 자기의 결함에 대하여 비판하면 “당신은 무엇을 믿고 뽐내는가?”라고 하는 등 당의 지도를 거부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사상은 지난 기간 보건성 부상의 자리에 앉아 당의 정책을 왜곡하면서 류포시킨 류기춘의 악독한 사상 여독이라고 신랄히 규탄하였다.¹¹⁰

1959년에 보건 의료에서 대대적으로 제기된 기술 지상주의에 대한 투쟁은 의학 기술과 전문성이 뛰어난 오랜 학자 인텔리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기술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연구’나 ‘새로운 치료’나 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수기를 자기 마음대로 환자의 진단 치료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¹⁰⁹ 홍학근, “의학 과학 일꾼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연구 사업에서 질을 제고할 데 대하여” (각주 87), 12.

¹¹⁰ “일꾼들속에서 부르주아 사상을 청산하고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자—량강도 보건 일꾼 회의 진행”, 『인민 보건』 1959년 10월, 44.

사람들”이고,¹¹¹ “개인의 ‘총명’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인민 보건 사업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과 인민의 고통을 덜어 줄 데 대한 실천적 문제들에 연구 사업을 집중시킬 대신에 ‘공명’과 ‘허풍’을 일삼고 있는” 자들이었다.¹¹² 아래로부터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고 당성과 계급성을 부인하는 이들에 대해 보건성의 지도 일꾼들도 기술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우대하였고 치료 “만능” 사상을 주입시켰다고 비판 받았다.¹¹³

무계급적이고 무당파적인 오랜 인텔리들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당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며 새로운 세대의 인텔리 양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실제 환자 치료 경험과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춘 교수와 대가들에게 배워야하고 이들의 권위가 주도하는 문화에서, 이들의 권위와 무당파성, 비정치성은 당의 명령과 동원에 무조건 순응하는 새 시대의 붉은 보건 일꾼 양성, 나아가 사회주의 건설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의학 교육의 사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수의 직위, 학위, 학적 역할을 막론하고 사상 지도와 통제가 가해져야 했다.¹¹⁴

당 정책만이 절대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오랜 인텔리들이 지도하는 교수-학생의 관계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오랜 인텔리들이 새 인텔리들에 대해 미치는 권위와 영향력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당 정책을 절대화하는 과정이 “계급 의식을 말살하는 사상”으로서 기술 지상주의를 타파하는 사상 투쟁이었다.¹¹⁵ 특히 의학 교육 기관 내에서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인 기술 지상주의는 새로운 보건 일꾼들에게 “자본주의 악습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¹¹⁶ 의학 교육 기관에서 후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기주의, 개인 영웅주의, 기술 지상주의의 이름으로 비판받고 숙청된 평양의대 외과 강좌장 김시창 교수의 사례는 강고한 사상 투쟁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책

¹¹¹ 리병남, “보건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이다” (각주 60), 9.

¹¹² 최창석,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실천 정형을 총화하는 보건 일꾼 회의 보고(요지)” (각주 93), 5.

¹¹³ “권두언: 보건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보건 부문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자” (각주 71), 17.

¹¹⁴ 리명구(보건성교육처 부처장), “론설: 의학 교육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7월, 8.

¹¹⁵ 김호철, “당 보건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2월, 11.

¹¹⁶ 최창석, 앞 글, 5.

을 절대화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 인텔리들, 특히 오랜 인텔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기에 적절한 사례가 되었다.

4) 오랜 인텔리 김시창의 숙청

김시창은 1910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36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경성제대 제2외과에서 수련 받으며 1943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44년부터 경성여자의과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그는 뇌수술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6·25전쟁 전에 김시창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2외과 교수로 발령받게 되고 전쟁 중에 북으로 가게 되었다.¹¹⁷ 김정기에 의하면 김시창은 전쟁 중에 서울에 남아있다가 리병남의 권유로 다른 의사들과 함께 북으로 가게 되었다.¹¹⁸ 전쟁 중 김시창은 군 종합병원에서 뇌수술을 담당하며 많은 부상병들을 뇌수술로 살려내어 김일성도 보건상 리병남에게 김시창에 대해 “얼마나 많은 귀중한 생명을 구했오. 의사 한 사람이 저렇게 여러 젊은 부상병을 구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오. 뇌를 수술하다니 참 처음 듣는 소리오”라고 치하하면서 평양 임상병원 외과 과장에 임명했다.¹¹⁹ 또한 전쟁 중 다양한 수술법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며 북한에서 “우리의 외과학이 이 전쟁을 통하여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받았다.¹²⁰ 김시창의 실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평양에 있던 소련 고문들도 그의 의술에 대해서는 놀랐다고 한다.¹²¹ 김시창은 1956년 12월에 폴란드에서 열린 외과학에서 뇌디스토마의 수술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¹²²

1958년 6월 북한의 의학 관련 대학과 연구소들에서 의학 연구를 지도하기 위

¹¹⁷ 한선희 외,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 (각주 11), 801-846.

¹¹⁸ 김정기는 김시창이 북에 온 이후 숙청될 때까지 개인적으로 만나며 접촉했던 이야기를 자신의 수기에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10여 년간 보건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상당한 권력이 있던 리병남의 지원 하에 김시창이 “조선 의학회”라는 학술 연구단체의 회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조선 의학회”로 기억하는 것은 의학 과학연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원장은 홍학근이었다. 의학 과학연구원의 학술지가 『조선 의학』이었고, 김시창은 이 학술지에 가장 활발하게 투고하며 연구 업적이 가장 두드러진 학자였기 때문에 이름을 혼동하고 그를 회장으로 잘못 기억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기, “<조선 의학회 사건>과 김시창 박사의 말로”, 『밀파: 전향간첩의 수기』 (각주 45), 231-237.

¹¹⁹ 같은 책, 234.

¹²⁰ 리재복·류규동, “조선 외과학의 발전”, 『인민 보건』 1957년 12월, 12.

¹²¹ 김정기, 『밀파: 전향간첩의 수기』, 233.

¹²² 김시창, “파란 외과학회 참관기”, 『인민 보건』 1957년 4월, 8.

해 의학 과학 연구원이 설립되었을 때,¹²³ 김시창은 초대 회원으로 임명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김시창 뿐 아니라 연구원 회원에는 월북 또는 납북한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들을 포함해서 일제 강점기에 교육받은 오랜 인텔리 출신의 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¹²⁴ 서울의대 정신과 조교수였던 임문빈은 뇌디스토마증에 대한 내과적 치료에 대해 발표하였고,¹²⁵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제1외과를 맡았다가 북으로 온 리재복은 복막염과 위암에 대한 외과 논문을 지도하여 발표하였다.¹²⁶ 김시창은 지도교수로서 두드러진 업적을 내었고,¹²⁷ 1958년 『조선 의학』에는 평양 의학 대학 외과학 임상 강좌 소속 7명의 저자들이 김시창의 지도를 받아서 뇌종양의 치료부터 마취에 이르는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였다.¹²⁸

¹²³ 1958년 6월 16일 개원식에 앞서 보건성 회의실에서 열린 의학 과학 연구원 창립총회에서 원장 홍학근, 부원장 신성우, 서기장 전시는, 9명의 상무위원들은 홍학근, 신성우, 전시는, 최명학, 도봉섭, 주성순, 최형구, 리정복, 리화경이 선출되었다. 초대 의학 과학 연구원 회원은 다음과 같다. “강건여 강원욱 강주연 김대인 김덕유 김락재 김배준 김병철 김봉한 김시창 김연희 김영범 김현세 계훈홍 남정현 도봉섭 라순영 량진홍 량철환 류근만 류기춘 리병남 리상룡 리성숙 리시재 리영구 리영일 리용겸 리유호 리재복 리정복 리정우 리종두 리화경 리종한 리호림 리종화 리주선 민병덕 서만석 신성우 박동실 배영기 임두순 임록재 박동렬 오천근 오형권 전정식 정두현 심학진 임태희 조호연 전시는 주성순 최도원 최명학 임문빈 정연창 최창석 최형구 홍학근 (가나다순)”. “학계소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학 과학 연구원 개원”, 『조선 의학』 제5권 4호 (1958년 7-8월), 74-75.

¹²⁴ 한국전쟁 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이들은 전쟁 중에 북으로 와서 평양 의학 대학 교수가 되어 환자 진료와 의학 연구와 논문 지도를 활발히 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 및 지도 교수로서 지도한 논문들을 의학 학술지인 『조선 의학』에 발표하였다.

¹²⁵ 임문빈(평양 의학 대학 정신병학 강좌 부교수), “뇌디스토마증에 관하여”, 『조선 의학』 5:4 (1958년 7-8월), 8-16.

¹²⁶ 박영덕(평양 의학 대학 병원 외과) (지도: 강좌장 교수 리재복) “천공성 복막염에 대한 임상적 관찰”, 『조선 의학』 제5권 6호 (1958년 11-12월), 34-39; 최린혁(평양 의학 대학 병원 외과) (지도: 강좌장 교수 리재복) “위암에 대한 임상적 관찰”,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40-41.

¹²⁷ 한선희 외, 앞 글 (각주 11), 801-846.

¹²⁸ 최왕룡(평양 의학 대학 외과학 임상 강좌) (지도: 교수 김시창) “론자: 뇌의 파라고니무스증 때의 일증 특유한 수뇌증에 대하여 (제1보)”,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11-17; 정상엽, 량장권(평양 의학 대학) (지도: 교수 김시창). “뇌 종양의 치료 레에 대하여”, 『조선 의학』 제5권 6호 (1958년 11-12월), 18-26; 강정철(평양 의학 대학 외과학 임상 강좌) (지도: 교수 김시창), “강화 마취의 임상적 리용 경험에 대하여”,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27-33; 오필근, 허영화(평양 의학 대학 외과학 임상 강좌) (지도: 교수 김시창), “교감 신경절 절제술에 대한 치료 경험”,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53-56; 리복현(평양시 립상 병원 신경 외과)

1958년 말까지 북한 의학계의 최고봉으로 명성을 떨치던 김시창은 1959년 9월부터 실명으로 보건성의 공식 잡지 『인민 보건』과 『조선 의학』에서 반혁명 분자로서 여러 차례 비판받았다. 그러나 김시창을 암시하는 비판은 “최근 일부 학교들에서 적발 폭로된 바와 같이 인명에 대하여 추호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실험 대상으로 취급한 일부 불순 분자들까지 ‘학자’ 또는 ‘교원’의 탈을 쓰고” 있다는 7월 보건성 교육처 부처장 리명구의 글에 처음 나타났다.¹²⁹ 1959년 9월호의 의학과학원 원장 홍학근은 의학과학원 창립 1주년 총회 보고에서 “김시창이와 같은 자는 과학자라는 간판 밑에 부정적인 성적은 은폐하고 소위 자기의 ‘업적’을 선전하였으며 악랄한 방법과 있지도 않은 성과를 날조하여 사기꾼 식으로 과학을 모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정책을 로골적으로 비방하면서 무당성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며 공식적으로 김시창을 단죄하였다.¹³⁰

한국 전쟁 중에 공을 세우고 평양의대에서 많은 의사들을 양성했으며, 신경 의학 기술과 학문 연구로 의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김시창을 숙청하는 데에는 고위급의 정치적인 판단이 선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8월 종파 사건 이후 반종파 투쟁을 거치는 동안 사회 모든 부문에서 당 정책이 절대화되며 사회 각 분야가 계급성과 당성을 갖춘 붉은 전사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 요청되는 시기에 김시창은 “붉은 보건 전사 만들기”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학계와 교단에서 영향력이 큰 김시창이 “당 정책을 로골적으로 비방하면서 무당성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소련의 과학 성과를 과소 평가하고 공공연하게 자본주의 국가 의학을 찬미”하며 “당 정책을 이러저러하게 비방”한 것이 워낙 영향력이 커서 “의학자들이 당 주위에 단결하는 것을 백방으로 방해한 반당 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오랜 인텔리 출신으로 김시창을 만나곤 했던 김정기도 많은 의사들이 김시창을 존경하고 따른 것이 큰 화근이 되었다고 한다.¹³¹

김정기에 따르면 1956년 늦은 가을부터 “의사들이 당의 지시보다 김시창 박사의 지시를 더 잘 집행한다”는 보고가 병원 세포 위원장과 구역당에 들어오기

(지도: 교수 김시창), “우리가 경험한 무통법에 대하여”,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57-61.

¹²⁹ 리명구, “론설: 의학 교육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7월, 8.

¹³⁰ 홍학근, “의학 과학 일꾼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연구 사업에서 질을 제고할 데 대하여” (각주 87), 11.

¹³¹ 김정기, “<조선 의학회 사건>과 김시창 박사의 말로” (각주 118), 231-237.

시작해서, 김시창은 공개적인 비판과 숙청의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¹³² 홍학근은 “적지 않은 의학 과학 일꾼들이 그의 소위 ‘권위’에 압도되어 그를 우상화하던 나머지 과학 분야에 군주적 학벌 중심의 가족주의를 형성하는 엄중한 사태를 조성”하였다고 비판했다.¹³³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김정기에 의하면 김시창은 매일 당 회의 비판대에서 자기 비판을 강요당했고, 결국 의사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르친 후배 의사들이 김시창을 반혁명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김시창이 할 수 없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한다.¹³⁴

1959년 김시창은 결국 숙청되었고 김시창이 있었던 평양 립상병원 외과는 그가 가르치고 지도한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 오피클인이 과장이 되었다. 북한에서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김시창은 1952년부터 1958년까지 평양의대 외과학 교수로 있었던 약 7년 동안 많은 수술과 연구를 수행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오피클인은 평양의대의 외과에서 김시창으로부터 외과의 훈련과 논문 연구를 지도 받은 제자였다.¹³⁵ 1960년 평양시 립상 병원 천리마 외과 과장이 된 오피클인은 자신의 지도 교수였던 김시창의 죄과를 고발하고 그가 당 중앙위에 의해 숙청 되었음을 밝혔다. “과거 우리 과에서는 반당 반혁명 분자인 김시창을 비롯한 일부 불순 분자들이 공명과 출세에 눈이 어두워 인명을 홀시하고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하며 당의 인민 보건 정책을 시비하고 반대하는 참을 수 없는 반당적 반인민적 행동을 감행하”여, “당 중앙 위원회의 제때에 되는 정확한 지도를 받으면서 이 해독 분자들을 적발 숙청하였”고, “이때부터 우리 병원과 과내에서는 이자들의 여독을 청산하고 더욱 확고한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하기 위한 사상

¹³² 같은 글, 234.

¹³³ 홍학근, 앞의 글, 11.

¹³⁴ 김시창 이외에 적십자병원 김하진, 함북도 길주군 병원 준의 량창근, 강원도 중앙 병원 외과 준의 리정우 등도 “출세와 공명을 위하여서는 환자의 생명까지 서슴치 않고 유린하는 비인간적이고 비계급적인 현상까지 발로한 심한 개인 리기주의자, 정치에 무관심한 자 등의 이유로 간첩 불순 분자로 비판되었다. 원영목, “보건 일꾼들은 높은 공산주의적 품성의 소유자가 되자”, 『인민 보건』 1959년 9월, 13. 김하진은 북한에서 전쟁 후 폐결핵 외과를 발전시켜 각종 폐절제술을 개발한 외과 의사였다. 리재복·류규동, “조선 외과학의 발전”, 『인민 보건』 1957년 12월, 9-13.

¹³⁵ 1958년 허영화와 함께 김시창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쓴 오피클인의 논문에 의하면, “우리는 1952년도부터 1958년 8월까지의 사이에 외과학 립상 강좌에서 각종 립상 병력에 교감 신경절 절제술을 적용한 39례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오피클·허영화(평양 의학 대학 외과학 임상 강좌) (지도: 교수 김시창), “교감 신경절 절제술에 대한 치료 경험”,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53-56.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게 되"어 마침내는 평양 립상 병원 외과가 1960년 4월 18일 영예로운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수여 받았다고 보고하였다.¹³⁶

오펜근은 이제는 “그 어떤 ‘대가’나 ‘권위자’에 의존하지 않고 당의 붉은 보건 전사들의 집체적 지혜와 노력만이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통해 “붉은 외과”를 창조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기술 신비주의는 완전히 분쇄되었”다고 선언했다.¹³⁷ 외과의 대가이자 권위자였던 오랜 인텔리 김시창에서 그가 길러낸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 오펜근으로 넘어간 평양 립상 병원 외과의 사례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오랜 인텔리의 세대가 가고 “붉은 보건 전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인텔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하였다.

4.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인간 개조

1959년에 격화된 보건 의료계 사상 투쟁은 1960년에 들어서는 긍정적 모범을 통하여 뒤떨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을 감화시키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호상 융화 묵과”하려는 가족주의 청산을 모토로 병원 의사들의 “결함”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간호원들의 기사가 실렸던 1959년도의 『인민 보건』은 1960년에는 공산주의적인 품성과 동지애에 입각한 상호 방조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주는 청산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보건 의료계의 혁명 전통 교양과 청산리 방식의 사업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귀결되어, 1960년 초반에는 많지 않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내용이 『인민 보건』 6월호부터는 ‘천리마’에 대한 특별 란을 두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1960년 초부터 시작된 북한 보건 의료 부문의 큰 변화는 청산리 교시에 의한 것이었다. 청산리 방법은 1959년 곡물 총 수확고의 하락 등 인민 경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김일성이 1960년 2월 강서군 청산리에서 중앙 지도 그룹과 함께 현지 지도를 하며 확립된 것으로 “지도 일꾼들이 생산 현장으로 군중 속으로 들어가 군중과 같이 상론하며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서 배우며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혁명적 사업 방법”이며 “일점을 관통하여 그 경험을 일반

¹³⁶ 오펜근(평양시 립상 병원 천리마 외과 과장), “천리마: 『붉은 외과』의 창조를 위하여”, 『인민 보건』 1960년 9월, 40-41.

¹³⁷ 같은 글, 40.

화”하는 방법이었다. 지도자들이 아래로 내려가 인민들 안에서 긍정적 모범을 찾아서 감화 교양하는 청산리 방식이 각 도당, 군당 수준에서도 당 사업 방식으로 전면 채용되었다.¹³⁸

보건 분야에서도 청산리 방법은 당의 군중 노선으로 관철되었다. 당 일꾼들은 일상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사, 간호원, 간병원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긍정적 모범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사람들을 감화시켜 모든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임무를 받았다. 보건상 최창석에 의하면 “보건 부문에 남아있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는 마사져 나가고 있으며 인민적 사업 방법과 작풍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성과 도, 시, 군 행정 기관 지도 일꾼들은 청산리 방법에 립각하여 병원과 진료소에 내려가 당 정책을 해설하여 주며 그들의 행정 조직 사업과 기술 실무 사업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 정상화”되고 있었다.¹³⁹

또한 청산리 방법은 병원 원장과 과장들이 의사, 간호원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며 가르치는 기풍으로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와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며 락후한 사람은 선진 분자로, 소극 분자는 적극 분자로 능숙하게 교양 개조하여 모든 사람을 다 한 사람 같이 단합시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장은 외래 사업에서 내원 환자 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직 실시하라고 성령이 하달되었을 때 아침 조회에서 한번 낭독해서 전달하고 환자들이 많다고 하면 과장들에게 “래원 조직을 하세요”라고 일방적인 지시만 했

¹³⁸ 1959년 8월 28일 당 중앙위 상무위원회의 “당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킬 데 대한 결정” 이후, 사회 각 분야의 당 우위 원칙이 구체화되고 제도화되었다[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각주 7), 784-786]. 1959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당 중앙위 확대 전원회의가 열려 “도·시·군(구역)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경제, 문화기관 등 모든 기관, 단체들은 해당 당 위원회의 통제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이는 1960년 1월 15일 당 중앙위 상무위 결정 “국가 기관 및 경제, 문화 기관에 대한 당의 령도와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하여”로 이어져 중앙 성 내 당 위원회에도 통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도·시·군 인민위원회 보건 행정 기관들은 현 간부들에 대한 재교양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 집행하며, 당적 사상 체계 확립과 정치 실무 기술 강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에 학습할 것을 요구받았다[최창석(보건성 부상), “지방 보건 행정 기관들의 조직 지도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하자”, 『인민 보건』 1960년 1월, 8]. 당의 일원적 지도 체계로서 청산리 방법의 확립에 대해서는 서동만, 앞 책, 887-897 참조.

¹³⁹ “보건 부문에 주신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전국 보건 일꾼 열성자 대회에서 한 보건상 최창석 동지의 보고”, 『조선 의학』 8:4 (1961년 7월), 6-19.

는데, 이제는 청산리 방법에 의해 병원장 자신이 환자가 많은 내과에 직접 들어가 일하면서 환자들이 병원에 합리적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¹⁴⁰ 김일성이 청산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사업에서 중심 고리를 포착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한 점을 뚫고 그것을 통하여 전반을 개선하는 방법, 즉, 한 고리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경험과 교훈을 찾아 그것을 보급하여 일반화시키는 사업 방법이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추진되었다.

청산리 방법은 노동당이 1956년 반종파 투쟁으로 인해 골이 더 깊어진 각계 각층의 군중들에 대해 긍정 교양을 통해 당의 주변에 묶어서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를 통합하려는 방침이었다.¹⁴¹ 한국 전쟁 후 북한 사회는 유엔군 협력자, 월남자 가족, 전쟁 포로 처리 등으로 사회 통합에 문제가 있었으며, 1956년 이후 전면화된 반종파 투쟁으로 불신과 반목이 심화되어 사회주의 건설에 어려움이 있었다.¹⁴² 1960년 4월 당 중앙 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각계각층 군중들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 데 대한 결정”에서는 (1) 거의 모든 북의 가족들은 남쪽에 친척이 살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남쪽으로 도주한 자의 가족이고, (2) 미국과 남조선의 일시적인 점령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점령자들에게 협조했으며, (3) 이전 전쟁 포로들의 일부는 문제를 안고 있고, (4) 큰 비중은 아니지만 북조선에 소부르주아적 요소가 잔존하기 때문에, “각계각층 군중들이 극소수의 적대 분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복잡한 계층을 청산리 방법을 통해 설복하고 교양할 것을 결정했다.

청산리 방법을 내재화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복잡한 성분의 군중들이 혁명적 실천을 통해 자신의 출신 성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며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인텔리들을 체제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침이었다. 인텔리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하기 위한 교양 개조 사업을 잘 조직하려면 인텔리들의 사상 의식 상태와 그 개변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지만, 사람의 사상 의식은 눈으

¹⁴⁰ 김유진(신포군 병원 원장), “집단적 혁신 운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인민 보건』 1960년 10월, 38.

¹⁴¹ 이하 논의는 김성보,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 개조’ 경쟁”, 『역사와 실학』 53 (2014), 149-175 중 160-163 참조.

¹⁴² 앞서 언급한 김정기의 회상기(1962)는 반종파 투쟁으로 당의 집중 지도를 받을 때 포로 출신의 상당수 학교 성원들이 겪은 두려움,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 기술한다. 김정기, 『필파: 전향간첩의 수기』 (각주 45), 281-288.

로 볼 수도, 자로 잰 수도 없고 “오직 실천 행동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사상적 럽장과 태도, 견해를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에 걸쳐 생활하는 것을 보아야 사상 의식이 개변 되어가는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었다.¹⁴³ 보건 의료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텔리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된 인텔리로 만들기 위한 인간 개조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인텔리들은 자신들의 실천 행동을 통해 사상이 개조되었음을 보여야 했다.

1959년 3월 생산 부문에서 시작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¹⁴⁴ 1959년 4월 조선 적십자 병원 산부인과에서 천리마 운동이 결의되어 보건 의료 부문에서도 시작되었다.¹⁴⁵ 4월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한 이래, 적십자 병원 산부인과는 대중적 영웅주의와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발휘하면서 당의 보건 정책을 철두철미 관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인정되어 9월 16일 산부인과 과장인 위동초의 이름과 천리마의 칭호가 같이 붙여 수여되는 “위동초 천리마 산부인과” 칭호가 수여되었다.¹⁴⁶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생산과 기술에 중점을 두던 천리마 운동이 발전되어 생산, 기술, 사상, 문화, 도덕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대중적인 운동이었다. 작업반 모든 성원의 집체적 지혜와 노력을 통해 생산에서 집단적 기술 혁신을 이룩하며, 사상, 문화 도덕에서 집단의 교양과 집단의 도움을 통해 모든 성원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운동이었다.¹⁴⁷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 사업과 집단적 혁신 운동의 결합으로 생산 부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보건 의료 부문에서도 “붉은 품성”과 “붉은 기술”이 모두 중시되었다. 투자의 증대 없이도 집체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많이 더 빨리 더 질 높은 생산을 목표로 하는 생산 부문처럼,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집체적인 노력과 기술 혁신으로 질병을 더 많이 예방하고 환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 치료하는 실제적인 목표가 있었다.

¹⁴³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텔리 정책』 (각주 1), 101.

¹⁴⁴ 강선 제강소 제강 직장 진응원 작업반에서 시작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설명은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I』 (각주 8), 243-252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같은 책, 252-258 참조할 것. 진응원 역시 남한 출신의 귀환병으로 소외된 집단을 편입하기 위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성보, 앞 글, 162.

¹⁴⁵ 본사 기자, “보건 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경쟁 형태인 천리마 과 운동 전개”, 『인민 보건』 1959년 5월, 64.

¹⁴⁶ “소식: 적십자 병원 산부인과에 천리마와 칭호를 부여”, 『인민 보건』 1959년 10월, 26.

¹⁴⁷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각주 8), 198-204.

그러나 보건 의료 분야가 여타 분야와 두드러지게 다른 내용은 “환자에 대한 봉사성”이었다. 1960년에 제시된 천리마 작업반 결의 내용은 첫째가 확고한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 둘째가 인민 대중에 대한 높은 봉사성의 소유, 셋째가 우수한 기술 기능의 소유, 넷째가 집단주의적 행동 규범의 소유였다. 천리마 작업반 수여의 평가 기준에서도 “사람의 고통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었다.¹⁴⁸ 보건 의료 분야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민 보건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며 인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의 질을 높이며 인민 보건 사업을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상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¹⁴⁹

일례를 보면, 신포군 병원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전개한 때부터 그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¹⁵⁰ 병원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환자들에 대한 높은 봉사성 소유, 병원 내 질서와 제도 확립, 물질 기술적 토대의 구축, 기술 실무 수준의 제고, 위생 개조 사업 등으로, 대부분 물질 기술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모두 일꾼들의 사상 의식 문제에 귀결된다고 보았다. 사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당 단체의 지도하에 공산주의적 교양과 혁명 전통 회상기 학습에 중점을 두고 먼저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사상 동원 사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적 교양의 핵심은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학습이었다. 1958년 11월 20일 김일성의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연설¹⁵¹ 이후 북한의 전 사회에서 이루어진 혁명 전통 회상기 학습은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¹⁵²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회상기는 보건 일꾼들을 개조하는 공산주의적 교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개인들은 회상기의 내용을 자신

¹⁴⁸ 한금린, “보건 부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정확히 조직 지도하자”, 『인민 보건』 1960년 12월, 36-39.

¹⁴⁹ 본사기자, “보건 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경쟁 형태인 천리마 과 운동 전개”, 『인민 보건』 1959년 5월, 64. 본 논문에서는 보건 의료 부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사상과 도덕의 측면에서 인간 개조 내용을 다루며,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룬다. 보건 의료 부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본 특집호에 함께 실린 고요한·김옥주·정준하, “북한 천리마 운동과 보건 의료 인력의 동원, 1956-1961” 참조.

¹⁵⁰ 김유진(신포군 병원 원장), “집단지 혁신 운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인민 보건』 1960년 10월, 37-40.

¹⁵¹ 김일성의 이 연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강호제, 앞 책, 234-239을 볼 것.

¹⁵²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각주 7), 865; 이태섭, 앞 책, 211-213.

의 사업과 활동과 결부시켜서 깊게 연구하고 그 내용을 작업반 내에서 발표하였다. 의사들은 회상기 중 “유격대의 군의”에서 “환자의 벗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굴의 투사”에서 “수술과 처치가 끝나면 의사는 환자를 보고 용케 참아 주어 고맙소”라고 말한 것을 보고 인민에 봉사하는 참된 의사로서 가져야 할 고상한 품성을 본받으려는 도덕적 자극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¹⁵³ 출근율이 나쁜 간호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비판만 하던 산부인과 과장은 “단합된 힘”, “고난의 40일” 등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연구하면서 자신이 공산주의자다운 품성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으며, “벌목공의 어머니”를 읽으며 과내 성원들이 단합되지 못한 이유를 자신이 과의 성원에 대한 어머니다운 심정과 사랑의 부족에서 찾게 되었다. 빨치산 회상기는 보건 일꾼들이 지속적인 교양과 실천 투쟁을 통해 도달해야 할 붉은 보건 일꾼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나가는 이악스러운 결의, 동지애, 환자에 대한 의료인들의 헌신성, 생명의 소중함 등을 체현한 회상기 인물들에 대한 학습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었다. 집단 안에서 개인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총화되는 활동이었다. 회상기 학습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결합되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¹⁵⁴

천리마 작업 반장들은 회상기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특정 사람에게 지정해서 공부하도록 한 뒤 발표하는 방식도 사용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일환으로 봉사성을 제고하여 환자에게 친절하기 운동에 대해 한 간호원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보지 않아서 “갑자기 친절하게 언행을 하자니 어텐가 부자연스럽고 간사스러운 것 같다”며 환자 앞에 나타나기를 주저하였다. 이 간호원에게 “공청원 리순희 동무” 회상기를 자기의 사업과 결부하여 연구하도록 하니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봉사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당의 배려를 인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봉사성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소개되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회상기 학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아침에 한 시간씩 일찍 작업반에서 와서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 틈틈이 읽기도 하며, 회복기 환자들이 더 심

¹⁵³ 이하의 회상기를 읽고 품성의 문제를 깨달은 의료인의 사례들은 다음 글에 있다. 김유진(신포군 병원 원장), “집단적 혁신 운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인민 보건』 1960년 10월, 37-40.

¹⁵⁴ 오필근(평양시 립상 병원 천리마 외과 과장), “천리마: 『붉은 외과』의 창조를 위하여”, 『인민 보건』 1960년 9월, 40.

한 환자들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자기 비판과 반성에도 사용되었고, 난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방향을 잡는 토론이나 회의에서 인용되기도 하였다.¹⁵⁵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간 개조 사업으로 특히 낙후 분자의 개조 작업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¹⁵⁶ 대중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천리마 운동이 고조됨에 따라서 노동당과 당의 정책에 대해 열성적이지 않고 뒤떨어진 낙후된 구성원들은 더욱 그 낙후성이 두드러지게 되어 지도 일꾼들에게 공개적으로 비판받고 낙후 분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한 병원장은 “나는 그들을 락후 분자라고 낙인해 놓고 욕설만 하였다”고 후에 반성하였다.¹⁵⁷ “욕설로 교양”하는 분위기에서 낙후 분자들은 더욱 위축되고 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는 이와 같은 그릇된 지도 작풍을 일소하고 정반대의 접근이 강조되었다. 천리마 작업 반장들은 뒤떨어진 성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욕을 하며 낙인찍는 대신,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여 장점을 찾아내며 모르는 것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긍정적인 것을 “즉시 공개적으로 찬양하며 개진(改進)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 받았다.¹⁵⁸ 환자에게 냉정하고 의료 사고를 자주 저지르던 한 간호원에 대한 교양에서 질책하고 비난하는 대신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점을 살리고 높게 평가하여 줌으로써 자기 사업에서 영예를 느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례도 소개되었다.¹⁵⁹ 낙후 분자들에게 적더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어 높이 평가해 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여 영예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사업 방법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었다.¹⁶⁰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는 낙후 분자들에게는 낙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타고난 락후 분자란 없다”는¹⁶¹ 기본 전제 하에, 이들이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 애로와 부족점을 파악하여 이를 작업반원 집단의 힘에 의거해 해결해 주는

¹⁵⁵ 이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인민 보건』의 여러 글들에서 나타나있다.

¹⁵⁶ 김진수(평양 의학 대학 병원 외과 과장), “『천리마 외과』 창조에서 얻은 우리의 경험, 『인민 보건』 1960년 8월, 35-36.

¹⁵⁷ 김유진, “집단적 혁신 운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38.

¹⁵⁸ “천리마 작업반 창조 운동을 보다 광범히 확대하기 위하여”, 『인민 보건』 1960년 10월, 41.

¹⁵⁹ 김진수, 앞 글, 35-36.

¹⁶⁰ 오펜근, 앞 글, 40.

¹⁶¹ 한금린, “보건 부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정확히 조직 지도하자” (각주 148), 39.

것이 기본 방침이 되었다. 보건상 최창석이 예로 든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¹⁶² 평양의대 병원 내과의 한 간병원은 시부모를 비롯해 8명의 가족이 있는데 직장에 나오면 활기가 없고 사업에서 열성을 내지 않으며 개인 위생은 불결하였다. 그를 비판하고 말썽꾼으로 여기던 내과 집단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한 후부터 “그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를 사랑하고 아끼며 도와주지 못한 것이 자기들의 결함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토론”하고 교양 대책을 강구하며 가정을 방문하였다. 시어머니는 병중에 있고 5명의 어린 아이들을 제때에 옷을 갈아입히지 못하고 집이 불결한 사실을 알게 된 내과 집단은 시어머니를 치료해 주는 것 뿐 아니라 일요일에 도배를 하고 장판과 아이들 옷 10벌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동지들의 사랑과 협조에 감격한 간병원과 그 남편은 이후 천리마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모든 구성원들을 혁명 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 동지로서 아끼고 사랑하고 인내성 있게 교양할 때 누구나 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개조될 수 있음을 확신하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앞섰으면 남을 도우라”는 구호 하에 뒤떨어진 사람들과 집단을 적극 도와서 천리마 작업반의 주위에는 한 명의 낙오자도, 뒤떨어진 집단도 없도록 하는 집단주의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야말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¹⁶³

지도 일꾼들 또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전개하면서 낙후 분자들의 생활을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나서 적시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지도 일꾼들이 개별 대화를 통해 각 성원들의 내면과 개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심정, 정서와 감정을 헤아려주며 사업하라는 것이었다.¹⁶⁴ 천리마 과 지도자들은 모든 성원들의 어려움을 제때에 포착하고 해결해 주며, 그들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해 줄 때에 성원들은 비로소 쾌활하고 명랑해져서 사업에 열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다.¹⁶⁵ 과내 성원들을 모두 집단적 혁신 운동에 망라시키는 일은 인내성 있는 집단적 노력을 통해 성원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전망성을 가지

¹⁶² 최창석, “보건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인민 보진』 1960년 9월, 12.

¹⁶³ 한금린, 앞 글, 39.

¹⁶⁴ 김하중(홍남 비료 공장 병원 천리마 외과 과장), “우리 작업반의 수기”, 『인민 보진』 1960년 12월, 40.

¹⁶⁵ 김유진, “집단적 혁신 운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각주 153), 38.

고 일하게끔 정확한 지도를 할 때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¹⁶⁶ 지난 시기 낙후하였던 성원들이 천리마 과 쟁취 운동에 참가한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나 집단적 혁신에서 선두에 서게 한 일은 이 운동의 가장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었다.¹⁶⁷ 보건 기관 지도 일꾼들은 자신들의 체험 결과 집단의 힘에 의하여 개조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결의를 다졌고, 이를 위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간 개조에 탁월한 공산주의 학교”가 되었다.¹⁶⁸

인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보건 의료 부문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이루어야 할 내용은 환자에 대한 높은 봉사성이었다. 일제 강점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양된 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함과 냉담함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골치 아픈 문제였다. 일제 강점기의 의사들은 전문 교육을 받은 인텔리로서 의료 기술로 어디서든 돈을 벌 수 있었다. 의원과 병원은 비싼 진료비 때문에 노동자, 농민 등의 저소득 계층은 이용이 저조하고 자산 계층이나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김일성은 1947년 5월 21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철저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기 위한 의료인들의 봉사성 문제를 제기하며, “의료 일꾼들이 인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던 일제 시기 통치 계급의 의사”와 같이 “돈만 알고 인민들의 병을 잘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면 인민들은 땅을 주고 삶의 보람을 안겨준 인민 정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¹⁶⁹ 1959년 4월 전국 보건 일꾼 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일 먼저 언급한 사상 투쟁 과제는 “환자들의 고통에 대한 냉담한 태도”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태동될 무렵인 1959년 4월까지도 북한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차갑고 사무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 전 해에 확립된 사회주의 인민 보건 의료 제도를 무력화시킬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의료인들의 천리마 작업반 칭호 쟁취 운동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알고 친절과 봉사성을 제고하는 운동은 가장 먼저 제기되었다. 초기에는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친절을 실천하지는 운동이 벌어졌다. 우선 의료인의 언어와 행동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잔재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퇴치하기 위한

¹⁶⁶ “천리마 작업반 창조 운동을 보다 광범히 확대하기 위하여” (각주 158), 41.

¹⁶⁷ 김진수, “『천리마 외과』 창조에서 얻은 우리의 경험” (각주 156), 35-36.

¹⁶⁸ 박진원, “당의 붉은 보건 전사 집단으로”, 『인민 보건』 1960년 11월, 44.

¹⁶⁹ 김일성, “인민 보건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282-290.

투쟁이 전개되었다.¹⁷⁰ 목소리부터 친절하게 “한 옥타브 낮추기 운동”, “더 많이 말하기 운동”, “끝까지 듣고 끝까지 말하기 운동” 등 환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해설하여 주기, 환자가 묻기 전에 따라가며 물어보아서 그들이 납득할 때까지 해설하여 “백 번 물음에 백 번 웃으면서 대답하고 해결하여 주기”, 엑스레이 과에는 만연했던 “촬영이나 투시를 해치우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찾아가 모셔오고, 따라가 치료하여 주자”는 운동들이 전개되었다. 의료 기관 내 천리마 작업반에서는 “아프지 않는 병동”, “울지 않는 소아과”, “쓰지 않는 약국” 등의 운동을 전개했다.¹⁷¹ 1960년 8월 보건상 최창석은 인민들이 천리마 과들을 경험하고는 “참다운 환자의 어머니들”로서 병원과 보건 일꾼들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갖게 되었으며, 그 전까지 보건 부문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봉사성 문제도 바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959년 3월 생산 분야에서 시작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 초기에 보건 부문의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1960년 4월경에는 북한 전역에 3,400여 개 작업반의 7만 여 명이 쫓기해 235개 선진 집단이 칭호를 받았으나 보건 부문에는 5개 집단만이 있었다.¹⁷² 평양과 대도시의 몇 개 큰 병원에서만 참여하였고, 위생 방역 기관, 의약품 자재 관리 기관, 산업 및 농촌 진료소들은 널리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최창석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몇몇 선진적 집단들의 협소한 운동으로 남아있다면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를 역설했다. 각급 보건 기관 지도 일꾼들은 직맹 단체와의 연계하여 운동 참가자들의 경험 교환과 견학 사업을 조직하고,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창조된 선진 경험과 우수한 성과들을 광범위하게 보급 및 일반화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찬양하고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이 운동을 확대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¹⁷³ 이를 위해 천리마 칭호를 받은 집단과 개인들의 수기, 체험담, 선전 등이 『인민 보건』 6월호부터 시작하여 연말로 갈수록 더욱 확대되어 실리게 되었다.

1960년 8월 22일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김일성은 천리

¹⁷⁰ 한규원(함흥의대 병원 『천리마』 렌트겐과), “집단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 보건』 1960년 8월, 31-34.

¹⁷¹ 최창석, “보건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각주 162), 12-14.

¹⁷² 한금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60년 5월, 10.

¹⁷³ 최창석, 앞 글, 15-16.

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서 전면적으로 전개하도록 촉구했다.¹⁷⁴ 북한의 전체 근로자들과 작업반들이 참여하고, 한 계단 높은 천리마 직장으로 발전시키며, 공업 뿐 아니라 농업, 건설, 운수, 상업, 보건, 과학, 문학, 예술 등 사회 생활 모든 부문으로 급속한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앙 성, 국 지도 일꾼들로부터 지방 당, 정권 기관 일꾼들과 현장의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일성의 8월 교시 이후 보건 부문에서 569개 작업반이 새로 참가하게 되어, 196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877개 작업반에 1만 6천여 명이 망라된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다.¹⁷⁵ 강호제에 의하면, 1960년 2월까지 교육, 문화, 보건에서 조직된 천리마 작업반은 전체 참가 작업반 중 1.7%에 불과했지만, 1960년 8월에는 4.0%, 1960년 말에는 19.4%로 크게 늘어났다.¹⁷⁶ 이러한 확대는 밑으로부터의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지도 일꾼들의 주도성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관장하는 직맹 중앙 위 부위원장은 새로 결기하는 작업반들은 사전에 충분한 사상 동원 없이 행정적인 조치로 처리하거나 대중의 준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결기 날짜를 인위적으로 제시하여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도 일꾼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운동을 조직하지 않도록 권고했다.¹⁷⁷

김일성은 선구자 대회에서 새로운 군중적 혁신 운동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적 경쟁 운동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민 경제 발전 뿐 아니라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며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집단”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집단 교양, 집단 방조에 의해 과거의 소극 분자가 오늘의 적극 분자로, 어제의 낙후 분자가 오늘의 선진 분자로 모두가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¹⁷⁸

1960년 9월 이후 더욱 확대된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환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병원의 작업반 전체가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해 열성과 정성을 다 바친 미담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평양시 임상 병원 외과 천리마 작

¹⁷⁴ 편집부,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한 김일성 동지의 연설”, 『인민 보건』 1960년 9월, 3-8.

¹⁷⁵ 박진원, “당의 붉은 보건 전사 집단으로” (각주 168), 43.

¹⁷⁶ 강호제, 앞 책, 295.

¹⁷⁷ 한금린, “보건 부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정확히 조직 지도하자” (각주 148), 36-39.

¹⁷⁸ 편집부,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3-8.

업반에서 청년 노동자인 림수정이 심한 타박상으로 중상을 입어 열흘 간이나 의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계속 환자 곁에서 침식을 같이 하며 온갖 열성과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함으로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냈다는 미담은 다른 보건 의료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널리 선전되었다.¹⁷⁹ 이러한 1960년 초의 보건 부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지금까지도 북한 보건 의료의 고유한 특징이 되는 “정성 운동”으로 연결되었다.

5. 정성 운동의 시발과 북한 보건 일꾼 윤리의 확립

현재 북한 보건 의료에서 환자에 대한 보건 의료인 윤리의 핵심은 “정성”이다. 의사, 구강 의사, 고려 의사, 간호원, 의료 기사 등 환자를 대하는 북한 보건 의료인의 가운(위생복)에 새겨진 “정성”이라는 두 글자는 1960년대 초부터 전당적(全黨的), 전국각적으로 전개된 “보건 일꾼 정성 운동”의 표징이다.¹⁸⁰ 북한 당국은 정성 운동을 설명하며, 북한의 보건 일꾼들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며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는 공산주의적 품모가 높히 발양되어 “인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피와 살도, 뼈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바쳐 끊어진 팔다리를 잇고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며 소경이 앞을 보고 병어리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치료 예방 사업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¹⁸¹ 보건 의료인의 정성 운동은 1990년대 국제적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북한 전 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물질적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대한 보건 의료인들의 헌신성은 언론을 통해 북한에서 더욱 자주 보도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북한 보건 의료인의 “정성 운동”은 1960년의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정성 운동은 1960년 11월 흥남 비료공장 병원 외과에서 시작되었다.¹⁸² 전신

¹⁷⁹ 최창석, “보건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12.

¹⁸⁰ 최영인·김수연·황상익, “‘정성 운동’이 북한 보건 의료에 미친 영향”, 『의사학』 15:1 (2006) 36.

¹⁸¹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통년감(1970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0), 281.

¹⁸² 흥남 비료공장 병원은 전쟁 이전에도 250병상을 가동하고 있었고, 전쟁 직후 소련에서 10억 루블을 원조 받아 최신식 기자재와 기술을 도입하고 있던 대표적인 산업 병원이었다. 때문에 1950년대 후반 산업 재해 예방의 우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병원이기도 했다. 1953년부터 흥

에 중증 화상을 입은 어린 소년을 의과 대학생들과 의료인들 38명이 천리마 작업반의 집단주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피부를 기증해 생명을 살려낸 일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홍남 비료공장 병원 외과는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앞서 나간 선진적인 집단이었다. 천리마 외과 과장 강하종에 의하면, 환자에 대한 봉사성이 미약하던 홍남 비료공장 병원 외과는 혁명 전통 연구를 통해 환자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집단적으로 더 느끼고 봉사성이 제고되어 새로운 유형의 자각된 부대로서 거듭나게 되었다.¹⁸³ 천리마 작업반 칭호 쟁취 운동을 결의한 이래, 자신들이 돌보는 비료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을 직접 경험하며 현장에 밀착해 필요한 심방 진료를 하고, 천리마 운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해왔다.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 어려운 일을 자진하여 주저함 없이 담당하게 되는 낙관성과 집단주의적 투쟁 정신으로 배양된 외과의 구성원들은 간장, 신장, 방광이 파열되고 장이 12곳 천공된 심각한 외상 환자를 3개월 동안 6회의 수술과 5,950 그램의 대량 수혈, 매일 20여 회의 국소 목욕과 처치를 통해 살려낸 바 있었다. 1960년 8월 4일에는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부여받게 되었다.

천리마 시대 북한 보건 의료인의 집단주의와 헌신성의 상징이 된 홍남 비료공장 병원 외과의 방하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960년 11월 13일 전신 48%에 3도 화상을 입은 방하수 소년이 외과 의사 강하종에게 후송되어 왔을 때, 당시 의료 기술로 전신 3도 화상은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우리는 천리마 집단이며 당의 붉은 보건 일꾼”이라는 자각으로 외과 구성원들이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소년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환자 치료를 위한 당 단체 협의회가 밤을 거듭해 진행되었고, 환자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원장, 과장, 간호장 대리가 수혈에 동참했다. 하지만 수혈로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다.

강하종은 “천리마 작업반 칭호 쟁취 운동에 나선 병원 내의 8개의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동종 피부 이식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먼저 나서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두 달 여가 지난 1961년 1월 16일 천리마 학급 쟁취 운동에 결

남 비료공장 병원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의료 인력의 훈련은 폴란드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배출된 전문의 중 한명이 강하종이었다. 강호경, “투쟁 성과로 해방 12주년을 맞는 홍남 비료 공장 종합 보건소”, 『인민 보건』 1957년 8월, 23-24.

¹⁸³ 강하종(홍남 비료 공장 병원 천리마 외과 과장), “우리 작업반의 수기”, 『인민 보건』 1960년 12월, 40.

기해 나선 함흥 의학대학 5학년 2반 학생 17명이 병원에 실습을 오게 되었다. 화상 환자의 모습을 본 학생들은 외과 수업의 기억을 떠올려 강하중 과장에게 자신들의 피부를 이식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들의 소식을 들은 병원 구성원들은 서로 피부를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강하중은 자신의 피부를 포함해 38명에 걸쳐 한 사람 당 가로세로 4cm 정도의 피부 조각을 떼어 소년에게 이식했고, 소년은 무사히 회복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이 사례가 중앙 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알려져 강하중 천리마 외과는 2중 천리마 외과 칭호를, 함흥의대 5학년 2반은 천리마 학급 칭호를 수여받았다.¹⁸⁴

노동당의 육친적 사랑을 피와 살을 떼어주어 구현한 천리마 시대의 의료인의 이야기를 이후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북한 의료인의 핵심 윤리로 만든 것은 김일성이었다. 기사를 읽은 김일성이 2월 15일 홍남 비료공장 병원과 함흥 의학대학에 치하의 편지를 보낸 것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정성 운동으로 발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¹⁸⁵

김일성은 편지에서 자기 살을 떼 내어 화상당한 소년에게 붙여주어 위급한 생명을 구한 보건 일꾼 21명의 이름과 함흥의대 학생들 17명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여 칭송하였다. 이 편지는 김일성이 병원장과 당 단체위원장, 함흥의대 학장과 당 위원장, 민청 위원장 앞으로 보낸 것이었다. 당성에 입각하여 이 일의 방향을 잡고 실현해 낸 주체는 두 기관의 행정 책임자 뿐 아니라 당 위원장, 민청 위원장이기 때문이었다. 편지에서 소년 환자의 생명을 구원한 의료인들의 집단적 헌신 행동에 대해 김일성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당에 의해 육성된 붉은 보건 일꾼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일제에 복무했던 오랜 인텔리가 아니었다. 노동당에 의해 육성된 새 시대의 붉은 보건 일꾼들이었다. 천리마 외과 과장 강하중은 1953년부터 폴란드에서 홍남 비료공장 병원에 대한 기술 협력과 의료 인력의 훈련은 담당하고 있을 때 배출된 전문의 중 한명이었다. 그와 함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수행한 외과의 간호원과 보건 일꾼들도 젊은 사람들로서 사회주의 북한에서 양성되었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당성이 확립된 붉은 인텔리들이었다. 김일성은 또한 함흥 의학대학 학생들이 “당에 의하여 육성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들”이라고 지

¹⁸⁴ 민청 출판사,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조선 청년 3』(평양: 민청 출판사, 1961), 180-203.

¹⁸⁵ “김일성 수상 홍남비료공장병원 일꾼들과 함흥의학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편지”, 『조선 의학』 8:2 (1961년 3월), 1.

청하였다. 1961년 당시 20대 초반인 함흥 의학대학 5학년 학생들은 북한에서 11년제 중등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학 교육을 받는 새로운 세대였다.¹⁸⁶ 북한 사회주의 초기에 오랜 인텔리가 원종이 되어 키워낸 새로운 인텔리 교원들이 직접 가르친 사람들로서 당에 의해 육성된 새 형의 붉은 보건 전사들이 될 것이었다.

김일성이 편지에 이어 비날론 공장 준공식에서 이들을 대면해 공개적으로 칭송한 일은 북한 보건 의료인의 도덕적, 정신적 유인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기제였다.¹⁸⁷ 김일성은 편지에서 “천리마 외과에서 집체적으로 발휘한 행동을 높이 찬양하면서 이러한 모범을 따라 전체 보건 일꾼들이 인민을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복무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하였다. 석 달 뒤 1961년 5월 9일 함흥 비날론 공장 준공식에서 그는 방하수 소년을 품에 안고 강하중 외과 과장과 장학과 학생의 손을 잡아주며 치하를 하였다.¹⁸⁸ 천리마 운동의 정점을 보여주는 함흥 비날론 공장 준공식에 방하수 소년이 등장하면서 당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자, 노동자, 보건 의료인들이 집단적으로 천리마의 대고조기에 이루어낸 성취가 하나로 총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160여 명 공산주의자들의 고귀한 살점이 옮겨졌고 그의 혈관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티 없이 맑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묘사된 어린 방하수 소년의 몸은 160여 명의 피부로 덮여져 있어 그 자체로 천리마 직업단 운동의 구호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을 체화한 것이었다.¹⁸⁹ 이와 같은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사회적 이익에 자발적으로 복종시키는 공산주의 도덕의 기초를 의미했다.¹⁹⁰ 즉 천리마 외과와 천리마 학급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사례는 집단주의에 기반한 자발적 헌신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이는 정성 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

¹⁸⁶ 북한 중등 일반 교육의 목표는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며 혁명 교양,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었다.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텔리 정책』 (각주 1), 106-107.

¹⁸⁷ 북한의 과학자인 리승기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으로 생산된 합성 섬유 비날론은 자력 경쟁의 방식으로 다른 국가를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모든 것을 비날론 공장 건설에로!”라는 당의 호소에 1만 1천 명이 경쟁적으로 건설 사업에 참여해 15만 평 대지에 50개 동을 1년 만에 완성한 함흥 비날론 공장의 사례는 천리마 운동을 넘어선 “비날론 속도”로 불리게 되었다. 김근배, “50-60년대 북한 리승기의 비날론 공업화와 주체 확립”, 『역사비평』

112 (2015), 114-123.

¹⁸⁸ 민정 출판사, 앞 글, 205-206.

¹⁸⁹ 한금린, “천리마 작업단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각주 172), 10.

¹⁹⁰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각주 8), 195.

다.

정성 운동이 공식적으로 표현된 것은 1961년 6월 7일 전국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에서 “보건 일꾼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김일성의 연설이었다. 1959년 4월 사회주의 제도와 모순되는 부르주아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요구한 2년 전의 전국 보건 일꾼 회의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였다. 최근 몇 해 동안 보건 부문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나 수많은 보건 일꾼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보건 기관들이 참다운 공산주의 붉은 집단으로 되고 있다고 칭송하며, 보건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북한 보건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적 덕목으로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환자에 대한 끝없는 정성”이라고 제시하였다. 정성 운동을 대중 운동으로 제기하며 김일성은 환자 치료에서 정성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의사나 간호원들이 환자를 육친의 정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할 때, 의료인들의 지혜와 기술을 다 내게 되고 환자들은 더 명랑해지고 윤택해지며 병과의 투쟁도 더 잘하게 되고 치료 효과도 더 높아진다는 것이었다.¹⁹¹ 더 나아가 “의사가 환자를 자기의 육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치료 사업에 끝없는 정성을 쏟아 부을 때 고치지 못할 병이란 없다”고 선언하였다. 김일성에 따르면,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보건 제도의 우월성이 있었다.

사회주의 사회의 보건 제도의 우월성은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 보건 시책과 함께 보건 일꾼들이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환자 치료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까지도 다 고쳐낸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¹⁹²

북한 의사들이 자신의 살을 떼어 환자에게 붙여주고 자기 뼈를 깎아 내어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정성”은 공산주의 사회의 보건 의료 일꾼들의 체화된 덕성이자 윤리였다. 김일성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들은 부르주아적 인도주의 사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붉은 보건 일꾼”들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강조되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붉은 보건 일꾼들을 “누구보다도 힘

¹⁹¹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153-154.

¹⁹² 같은 책, 151-152.

있고 훌륭한 공산주의 교양자로 당 정책의 선전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보건 의료인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면 정성에 의해 더 잘 고칠 수 있고 낙후된 사람들을 더 잘 교양·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고집 세고 뒤떨어진 사람이라도 병이 나서 의사의 신세를 지게 되면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보건 일꾼들이 정성껏 치료해 주면서 당 정책을 선전하고 교양 사업을 하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뒤떨어진 사람을 선진 분자로, 소극 분자를 적극 분자로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인민들에게 당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사람들을 당 주위에 묶어세울 수 있는 것이 보건 일꾼의 핵심 역할이었다.¹⁹³ 김일성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 있는 4만 명의 보건 일꾼들이 한 해 동안에 열 명씩만 교양한다고 해도 매년 40만의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세울 수 있었다. “이는 실로 대단한 것”이므로 누구나 다 병 고치는 의사 역할과 함께 당 정책을 선전하고 교양하는 선전 교양자적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보건 조직학』을 집필하여 북한 보건 조직학의 이론적 기초를 닦은 최창석은 북한의 보건 일꾼 윤리를 정식화하였다.¹⁹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최근에 발양된 것으로 살과 뼈를 떼어주고 깎아주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보건 의료 일꾼들의 공산주의적 미거(美舉)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로서 북한 보건 일꾼들 사이에 새로운 공산주의적 윤리가 형성되어 발전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보건 일꾼들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과 보건 일꾼들의 윤리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북한 보건 일꾼 윤리는 환자-의사 관계 윤리, 동료 의료인 윤리로 제시되었다. 먼저, 사회주의 사회에서 동료 의료인 관계 윤리는 상호 협조와 동지적 단결에 기초해서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료 보건 일꾼들 모두와 사회주의 성원과 함께 화목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므로, 보건 일꾼들은 환자들 앞에서 서로 인격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동은 허용되지 말아야 했다.

둘째, 사회주의 사회에서 환자-의사 관계 윤리의 핵심은 의사와 환자들 간의 동지적 관계이며 고통에 대한 냉담한 태도는 배격되어야 했다. 보건 일꾼들은

¹⁹³ 같은 책, 155.

¹⁹⁴ 최창석, “제1장. 보건 일꾼들의 윤리”, 『보건 조직학(의학 대학용)』 (평양: 고등교육도서 출판사, 1962), 347-356.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고쳐야 한다는 준칙을 새기며 인민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며 헌신·분투하는 높은 공산주의적 품성을 지닐 것을 요구받았다. 또한 보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 대한 정성이었다. 따라서 불치병이라 하여 적극적 치료를 강구하지 않고 주로 형식적인 대중 요법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고치치 못할 질병이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로 치료에 임해야 했다. 환자는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질병을 불치병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즉 의사는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쳤으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도덕적인 책임을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환자의 요구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며, 의사로서 주견을 가지고 사업하고 환자가 의사의 분부를 자각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교양할 줄 알아야 했다.

그러나 최창석이 강조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보건 일꾼 윤리의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는 내용은 보건 일꾼들의 당과 혁명,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유형의 보건 일꾼들은 혁명가적 자질을 배양하고 혁명적 낙관주의로 무장되어야 했다. 보건 일꾼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당이 제시하는 혁명 위업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는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과 함께 숨쉬고 행동하며 당과 인민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당 중앙위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수령 체제로 옮겨진 현재 북한 보건 의료인들은 왼쪽 가슴에 “정성”이라는 글씨를 새기고 있다. 이 글씨는 환자-의사 윤리를 나타내고 있지만, 반대편 가슴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습을 담은 휘장이 북한 보건 의료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율하는 윤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¹⁹⁵

6. 결론

1956년부터 1961년까지 북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진행된 사상 투쟁은 이 부문 인텔리들의 정체성을 전적으로 변화시켰다. 1956년 종파 투쟁 이전에는 북한이 보건 의료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오랜 인텔리들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

¹⁹⁵ 최영인 외, “정성 운동이 북한 보건 의료에 미친 영향” (각주 180), 35.

였기 때문에 사상성과 정치성이 부족하여도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들은 전문성을 통해 북한 사회 내에서 핵심적인 보건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6년 말 이후 반종파 투쟁으로 시작된 사상 투쟁은 전 부문의 보건 인력에 대해 사상성과 당성을 요구하였다. 북한의 보건 일꾼들에 대한 사상 투쟁은 비교적 늦게 전면화되었다. 8월 종파 사건 직후 김일성은 무엇보다도 당 조직과 정치 조직, 군사 조직에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반종파 투쟁을 벌여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 시급했으므로, 이들 분야에 대해 선자적인 조치들을 취한 이후에 보건 의료의 포괄한 사회의 각 부문으로 사상 투쟁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북한 보건의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보건 의료 분야의 전면적인 사상 투쟁과 인간 개조 사업은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무상 치료와 예방 의학을 기조로 하는 북한의 인민 보건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분야였다. 북한 주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명랑하게 노동하며 생활하는 무병장수의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해 북한은 보건 의료 부문에 상당한 비중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료 시설과 의약품, 의료 기기 생산 확대와 보건 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전면적이며 완전한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자 했다. 인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생긴 후에는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아버지 김일성과 어머니 노동당이 육친적인 사랑으로 인민들을 보살피는 것을 매개하는 이들은 바로 보건 일꾼들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환자를 치료하는 자본주의 잔재가 남아 환자를 냉담하고 사무적으로 대하는 보건 일꾼들은 당과 당 정책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모든 보건 일꾼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없애는 광범위한 사상 투쟁과 공산주의 교양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였다.

반종파 투쟁으로 발화된 전국적인 사상 투쟁을 천리마 운동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이어간 사회주의 대고조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보건 의료 분야의 사상 투쟁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전 부문이 천리마 운동으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1956년부터 1958년은 생산 현장에 밀착한 보건 의료 제공과 진단서 관리로 노동력 손실을 줄이고, 농촌, 도시, 생산 현장을 위생 문화 운동에 동원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1958년 9월 당 중앙위의 붉은 편지 접수로 본격화된 밑으로부터의 사상 동원은 1959년 4월 김일성과 당 중앙위가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서 보건 부문의 낡은 사상 잔재 청산을 촉구한 이래, 고강도의 전국적 사상 투쟁으로 연결되었다. 중앙당의 지도로 보건성의 전국 행정 지도망을

통해 각 보건 기관에서 진행된 “낡은 사상 잔재 청산 투쟁”은 가족주의, 지방주의, 기술 지상주의 청산을 위한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집단적으로 조직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간호원, 간병인 등의 중등 보건 일꾼이 의사, 준의, 병원장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1959년에 노동당이 낡은 사상 잔재 청산 투쟁에서 요구한 반기술 지상주의 투쟁은 의사나 의대 교수, 보건 기관의 간부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들에 대한 반대 투쟁을 주도하는 세력은 당 조직과 중등 일꾼들이었다. 특히 과거 인텔리를 키워내는 핵심 인력으로 뛰어난 의학 기술과 환자 치료의 경험을 갖춘 오랜 학자 인텔리들은 이제 사회주의 건설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전문성, 즉 기술 지상주의와 가족주의에 기반한 권위와 무당파성, 비정치성은 당의 명령과 동원에 무조건 순응하는 새 시대의 붉은 보건 일꾼 양성에 큰 장애가 되었다. 외과의 대가이자 권위자로 보건 의료 분야의 오랜 인텔리를 대표하던 평양의대 강좌장 김시창 교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기술 지상주의의 이름으로 비판받고 숙청되었다. 1960년 평양 림상병원 외과에서 오랜 인텔리 김시창이 길러낸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 오피근이 과장이 되어 “그 어떤 ‘대가’나 ‘권위자’”에 의존하지 않고 전 과의 성원들이 북한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선구하는 집단이 된 것은 이 시기 북한 보건 일꾼들이 사상성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붉은 보건 일꾼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1960년에는 보건 분야에서도 공산주의적인 품성과 동지애에 입각한 상호 방조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는 청산리 방법에 의한 당의 군중 노선이 관철되어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1960년 9월 이후 더욱 확대된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환자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 병원의 작업반 전체가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해 열성과 정성을 다 바친 미담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바로 1960년의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북한 보건 의료인의 “정성 운동”이 비롯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정성 운동”은 현재까지도 북한 의료인들의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덕목이자 윤리가 되었다. 보건 부문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의료인의 인민에 대한 봉사성 문제도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해서 해결되어 간 것으로 평가받았다. 군중적 혁신 운동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적 경쟁 운동이라 불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방법이 되었다. 특히 보건 일꾼들은 당의 육신적 사랑을 자신의 삶과 피를

떼어주는 실천적인 사상으로 증명하며 인민들을 당 주위에 묶어세울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임을 상징하게 되었다. 전면적인 사상 투쟁 이후 북한 보건 일꾼들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윤리는 당과 혁명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었다. 1956년부터 1961년까지 반종파 투쟁을 거쳐 천리마의 대고조기에 이르기까지 북한 보건 일꾼들에 대한 일련의 사상 동원은 보건 일꾼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과 함께 숨쉬고 행동하며 당과 인민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당의 붉은 보건 전사로 변화시켰다.

(투고: 2018년 4월 20일, 심사 완료: 2018년 10월 29일, 게재 확정: 2018년 10월 29일)

Creating the Red Health Warrior: Ideological Struggle in North Korea's Health Care Sector, 1956-1961

JUNG Jun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Min Kyu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Ock-Jo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From the early phase of nation-building,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considered the intelligentsia as a critical part of national development.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absolute number of intelligentsia required for socialism was insufficient. The Party allowed the old intelligentsia trai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even if their family origins and ideologies were deemed problematic. This paper discusses the ideological struggle between 1956 and 1961 in the North Korean healthcare sector. From late 1956, the ideological struggle triggered by the anti-sectarian strife led to a change of policy toward the old intelligentsia. The ideological struggle was call for change that suited the new socialist healthcare system. This paper will explore the process in which the *Chollima* Workteam Movement developed into a collective human remaking movement after 1959, which enhanced the communist culture and practices. During this period, which was decisive for formation of North Korea's socialist system, North Korean doctors created a unique identity and socialist medical ethics of *jeongseong* (devotion). In the end, this paper will show how the policy toward the intelligentsia played out in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 during the formative years of the socialist system in North Korea.

Keywords. *Chollima* Movement, Devotion Movement, health workers, ideological struggle, old intelligentsia, remaking human